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20호 10월 20일

평양 근로자사 1964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 관 지
(반 월 간)

제 20 호 (258)
1964년 10월 (하)

차 례

공산주의자와 인간성

오늘 당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특히는 일'군들 속에서 인간성을 높일 데 대한 문제를 중요하게 제기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가 승리하였고 그에 기초하여 날로 발전하고 있는 새로운 인간 관계 즉 사회주의적 동지적 관계를 전면적으로 개화시켜야 할 사회 발전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동시에 이것은 정치-사상적으로 굳건히 뭉쳐진 우리 당과 전체 혁명 대오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당은 우리의 통일된 혁명 력량을 사람들의 인간적 관계의 측면에서까지 더욱 공고화할 것을 당 건설에서의 중요한 과업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의 성과적 해결 여부는 당원들 특히 지도 일'군들 속에서 인간성을 더욱 발양시키는 것과 중요하게 관련된다.

그러므로 김 일성 동지는 최근 년간에 일'군들이 당성, 문화성과 함께 인간성을 높일 데 대하여 수차 강조하였다.

원래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인간성은 뗄 수 없는 풍모의 하나이다. 인간성이 풍부하다는 것은 그 만큼 그가 공산주의자로서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한다.

당성이 강할 뿐만 아니라 인간성이 풍부한 일'군들만이 대중의 지휘 성원으로서의 응당한 위치에 설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 ✻

사람들의 인간성의 자유로운 발양과 전면적인 발전은 오직 사회주의 하에서만 가능한 것이고 자본주의 하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자본주의 하에서 부르죠아지는 자본의 지배에 대한 근로자들의 반항심을 거세하며 그들의 계급적 각성을 무디게 하기 위하여 《자선》, 《박애》, 《만민 평등》, 《인권 옹호》 등 허울 좋은 가짜 인도주의를 제창한다. 그러나 현실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일하지 않는 부르죠아지는 호의 호식하며 근로자들에 대한 비인간적 착취 우에서 행복을 찾는 반면에 근로자들 자신은 피땀 흘려 일하고도 학대 받고 굶주리는 이 불공평한 사회에서 《평등》과 《인권》을 떠드는 것은 완전히 거짓이다.

자본가들은 돈과 재물을 위해서라면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을 가리지 않으며 지어 살인까지도 서슴지 않는다.

억압과 착취가 지배하는 계급 사회에서 특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착취 계급과 피착취 계급 간에는 물론 착취 계급 호상간에도 인간성이란 있을 수 없다.

참된 인간성은 오직 피착취 근로 대중과 그들의 해방을 위한 투쟁에 몸바쳐 싸우는 사람들, 공산주의자들에게서만 찾아 볼 수 있는 고유한 품성이다.

공산주의자들의 인간성은 가장 높은 형태의 인간성이다.

공산주의자들은 로동 계급에 대한 자본가들의 착취를 없애기 위하여 싸울 뿐만 아니라 사람에 의한 사람의 온갖 착취를 끝장 냄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진정으로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 관계를 맺으며 그 기초 우에서 누구나 다 같이 일하고 다 같이 발전하며 다 같이 행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싸운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의 인간성은 결코 단순한 리념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인간성을 론할때 우선 사람들이 서로 존경하고 참으로 사랑할 수 있는 현실적 조건을 마련하는 문제 즉 사회주의의 전취를 위한 계급 투쟁, 사회 혁명과 련결시킨다.

착취 제도를 전복함이 없이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진실로 인간의 존엄이 보장될 수 있는 현실적 조건을 마련할 수 없다.

착취 계급 사회에서 그 제도를 반대하는 계급 투쟁과 사회 혁명을 떠나서 인간의 사랑과 존엄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은 한갖 공념불에 불과하다.

계급 투쟁과 혁명 문제를 떠나서 《인도주의》요, 《인권 옹호》요, 《인류에 대한 사랑》이요 하고 소위 《인간성》의 구호만을 전면에 내세우는 자들은 대중으로 하여금 부르죠아지와 착취 계급의 억압과 략탈을 보지 못 하게 하려는 사람들이거나 부르죠아 인도주의의 선전 앞에서 완전히 굴복 당한 가련한 사람들이다.

오늘 미제를 두목으로 한 제국주의자들과 그 대변자들은 저들의 침략과 략탈을 은페하며 식민주의 정책을 은페하기 위하여 기만적인 《평화》 구호에 적극 매여 달리면서 자기들이 마치 인류의 운명에 대한 그 어떤 인도주의적인 배려나 책임감이라도 있는듯이 떠들고 있다.

도대체 어떻게 침략과 략탈에 의거해서 살아 가는 제국주의자들에게서, 그 대변자들에게서 인류에 대한 사랑과 배려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자본주의-제국주의는 사람들에게서 인간성을 말살하고 인간 증오와 야수성을 키워 주며 《사람을 사람에 대한 승냥이》로 만든다.

착취 계급 사회 특히 자본주의-제국주의 하에서는 인간성이 피착취 근로 대중 속에서도 옳게 발양, 발전될 수 없고 부단히 질식되는 결과를 피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은 인간성 문제를 말하기 전에 이러한 착취 제도의 파괴를 위한 계급 투쟁, 혁명 투

쟁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며 인간성 문제를 그와 밀접히 결부시키는 것이다.

프로레타리아 혁명은 바로 진정한 인도주의를 구현하는 현실적 길이다.

오직 프로레타리아 혁명을 통하여 로동 계급이 주권을 틀어 쥔 조건에서만, 모든 사람이 착취에서 해방되고 진정한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는 사회주의 조건에서만 사람들 사이에 참된 인간 관계가 맺어질 수 있으며 오직 이 때에만 인간성이 전 사회적인 성격을 띠고 발전할 수 있다.

사회주의가 전면적으로 승리한 우리 나라에서 인간 관계는 호상 신임과 존경, 배려, 방조에 기초하는 동지적 관계로 특징 지어진다. 인간적인 배려와 사랑은 사회 생활에서의 사람들의 기본 관계로 되고 있다.

현실은 이것을 잘 보여 준다.

북반부에 수립된 프로레타리아 독재, 사회주의 제도 하에서 착취와 압박의 사회적 근원이 청산되고 계급 교양, 공산주의 교양이 성과적으로 진행된 결과 사람들의 정치-도덕적 풍모는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우리 나라 근로자들 속에서는 개인의 리익보다 집단의 리익을 더 귀중히 여기며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고 배려하는 아름다운 도덕 품성이 높이 발양되고 있다.

화상 당한 한 어린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무려 30여 명의 사람들이 자기의 살을 떼여 이식해 준 흥남 비료 공장 의료 집단과 함흥 의과 대학 학생들의 인간에 대한 지극한 사랑은 널리 알려져 있다.

김 정순 영웅은 자기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물 속에 뛰여 들어 얼음'구멍에 빠진 일곱 명의 학생들을 건져 주었다.

리 홍렬 동무는 혁명 동지의 심리적 고통을 풀어 주기 위하여 50여 통의 편지를 도처에 보내고 173 개의 인민반을 찾아 다니면서 끝내 전쟁 시기에 헤여졌던 오누이를 서로 만나게 해 주었을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집까지 내여 주어 새 생활의 기쁨을 맞이하게 해 주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가 청산된 우리 제도 하에서 이루어진 사회 성원들의 새로운 정신-도덕적 풍모를 보여 주고 있으며 고상한 인간성이 활짝 꽃 피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실로 우리 나라에서는 사람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배려, 존경과 신뢰가 전 사회적인 지배적 도덕 규범으로 되였다.

이것은 우리 당이 그처럼 힘들여 진행한 교양 사업의 빛나는 열매이며 우리 사회의 불패의 생활력의 담보이다.

* *

우리 일'군들이 인간성을 높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선 대중에 대한 옳은 관점과 태도를 가지는 것이다.

인간성이란, 일반적으로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배려의 품성을 말하는데 이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사람들에 대한, 인민 대중에 대한 옳은 관점으로부터 출발하는 도덕적 풍모이다.

공산주의적 인간성은 인민이 력사의 창조자이고 혁명의 동력이라는 관점에 기초한다.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은 인민 대중이며 그들의 힘과 지혜이다.

인민 대중을 믿지 않거나 경시하는 관점을 가지고서는 혁명을 할 수 없다. 대중을 안중에 두지 않고 그들을 위해 투쟁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으며 또 대중의 력량을 떠나서 혁명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어디까지나 혁명적인 군중 관점에 철저히 서서 대중을 진정으로 믿고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며 그들의 충복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대중을 위해서라면, 그들의 해방과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 지어 생명까지라도 바칠 각오가 되여 있어야 한다.

이러한 군중 관점에 옳게 설 때만이 우리 일'군들이 참다운 공산주의적 인간성의 소유자로 될 수 있다.

공산주의적 인간성을 가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또한 혁명적 군중 사업 방법과 인민적 사업 작풍을 체득하는 것이다.

일'군들의 인간성은 사람들과의 사업을 통하여, 군중 사업 방법과 사업 작풍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발현된다. 공산주의적 인간성을 가진 사람에게서 관료주의적 사업 작풍을 생각할 수 없으며 반면에 군중에 대해서 호령하고 명령하며 관리 행세를 하는 그런 사람에게서 공산주의적 인간성을 찾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일'군들이 공산주의적 인간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당의 군중 관점으로 무장하는 동시에 혁명적 군중 사업 방법과 인민적 사업 작풍을 체득하여야 한다.

군중 앞에서 틀을 차리거나 세도를 쓰는 것은 우리 당의 혁명적 군중 사업 방법, 인민적 사업 작풍과는 근본적으로 배치된다. 일'군들의 권위와 위신은 틀을 차리거나 호령하는 데서가 아니라 오히려 인민들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겸손성에서, 사업에서의 이신작칙에서 보장된다. 왜냐 하면 자각된 우리 근로자들은 오직 그러한 풍모를 가진 일'군들만을 자신들을 위한 진정한 일'군으로 믿고 존경하며 모든 것을 그에 의탁하며 그들의 모범을 따라 투쟁에 나서기 때문이다.

원래 우리 일'군들이 로동자, 농민 즉 혁명 군중 속에서 나왔으니 만큼 그들 앞에서 틀을 차리거나 관료주의적으로 행세하는 것은 자기의 계급적 처지를 잊어 버리는 것으로 된다.

우리 일'군들은 군중을 대함에 있어서 언제나 까다롭지 말고 너그러워야 하며 쌀쌀하지 말고 따뜻하여야 하며

숭고한 공산주의적 인간성을 보여 주어야 한다.

공산주의적 인간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자기 계급, 자기 인민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계급적 원쑤를 미워할 줄 아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

계급적 원쑤들을 미워하는 정신이 없는 사람에게서 결코 자기 계급, 자기 인민에 대한 사랑을 바랄 수 없다.

만일 우리 조국 남반부를 강점하고 있는 미제와 그 주구들에 대한 철저한 증오가 없다면 그들의 발'굽 밑에서 전대미문의 기아, 빈궁, 무권리에 허덕이는 형제들에 대한 진정한 사랑, 그들을 해방하려는 투쟁 정신도 말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미제를 비롯한 모든 제국주의자들과 식민주의자들, 지주, 자본가들을 미워하는 정신이 없다면 그들의 압제와 착취 밑에서 신음하는 수억만 피착취 근로 대중에 대한 사랑, 그들의 해방을 위한 세계 혁명을 말할 수 없다.

참으로 인간성의 문제는 착취 계급에 대한 철저한 증오, 그들로부터의 피착취 대중의 해방을 위한 열렬한 투쟁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여야 한다. 또한 우리 사회에 있어서는 인간성이 인민들의 생명 재산을 침해하려는 적대 분자들의 책동으로부터 사회주의 전취물을 보위하기 위한 투쟁에서 표현되여야 한다.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인간성은 그 어떠한 초계급적 인간성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다. 우리의 인간성은 오직 로동 계급의 계급적 립장, 혁명적 립장에서 출발한 것이며 공산주의적 당성에 기초한 것이다.

당성, 계급성, 인간성은 서로 련관되여 있다. 인간성이 없는 사람에게서 진정한 당성, 계급성을 말할 수 없으며 당성이 없는 사람에게서 참다운 인간성을 생각할 수 없다.

당성과 인간성을 대립시키거나 량자간의 불가분적 련계를 리해하지 못하고 어느 한 측면에만 치우치는 것은 다같이 참된 당'적 립장과는 완전히 모순된다.

자기 계급, 자기 당, 자기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계급적 원쑤들에 대한 불타는 증오의 정신은 공산주의적 인간성의 불가분의 두 측면을 이룬다.

우리 일'군들이 고귀한 인간성의 소유자로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혁명적 수양을 부단히 강화하여야 한다. 혁명적 수양이 높으면 높을수록 인간성은 더욱 풍부해지며 따라서 이것은 대중을 당 주위에 묶어 세우는 데 있어서, 대중의 혁명적 열의를 높여 주는 데 있어서 힘으로 된다.

혁명적 수양에서 중요한 것은 학습이다.

맑스-레닌주의 원리 학습과 당 정책 학습을 강화하여야 하며 특히 군중 로선을 확립하기 위한 당의 력사적인 투쟁 경험을 옳게 체득하여야 한다. 그래야 인간성의 문제를 옳게 파악하여 자신의 신념으로 만들 수 있으며 그의 구현을 위하여 더 잘 노력할 수 있다.

우리는 언제나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는 김 일성 동지의 높은 덕성에서 배워야 하며 김 일성 동지에 의하여 지도되고 교양 육성된 항일 빨찌산들의 고귀한 인간성의 모범에서 꾸준히 배워야 한다.

항일 빨찌산들은 오직 공산주의자들에게만 고유한 인간성의 모범, 자기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생동한 모범을 보여 주었다. 우리는 그들의 모범을 본받아 자신을 부단히 수양함으로써만 더욱더 풍부한 인간성의 소유자로 될 수 있다.

동시에 우리는, 항일 빨찌산들이 이룩한 혁명 전통을 이어 받고 그것을 생활에서 구현하고 있는 천리마 기수들의 인간성의 모범에서 배워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우리 일'군들은 공산주의적 인간성의 진수를 더 잘 깨달을 수 있고 그것을 실생활에 잘 옮길 수 있다.

인간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또한 당 생활을 부단히 강화하는 것이다.

우리 일'군들은 인간성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당 생활의 중요한 측면으로 간주하고 인간성이 결여된 언행의 사소한 표현과도 타협하지 말고 날카로운 사상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

문화적 소양을 높이는 것도 인간성을 높이는 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문화적 소양을 높여야만 사람들의 생활을 그 내면 세계에 이르기까지 더욱 깊이 리해할 수 있으며 부드럽고 인정미가 있는 일'군으로 될 수 있다.

혁명적 수양을 통하여 더욱 풍부한 인간성을 가짐으로써 우리는 정치-사상적으로 굳건히 다져진 전 사회의 통일 단결을 인간적 면에서까지 발전시키며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빨리 추진시킬 데 대한 당의 의도를 원만히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조 종환

사회주의의 건설과 사회주의 사회의 발전을 촉진함에 있어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특히 오늘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는 맑스-레닌주의의 적들과의 사상 투쟁에서 중요하게 제기된다.

제국주의 부르죠아들은 자신들의 멸망이 가까와 오고 인민 대중의 혁명적 의식이 제고되면 될수록 더욱더 《반공》 선전에 광분하고 있다.

민주주의, 자유에 대한 문제는 제국주의자들의 《반공》 깜빠니야의 중심적인 문제의 하나이다. 제국주의자들의 방송, 신문, 출판물 등 온갖 선전 수단들은 사회주의와 프로레타리아 독재 하에서는 민주주의와 자유가 없다고 집요하게 중상 비방하고 있다. 이에 오늘 남조선의 군사 파쑈 도당이 적극적으로 합류하고 있다.

제국주의 부르죠아들은 마치 부르죠아 민주주의를 《만민을 위한》 것인듯이 가장하면서 인민 대중을 속이기 위하여 갖은 방법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부르죠아 민주주의는 그것이 제아무리 비단옷 차림을 하여도 근로자들을 위한 민주주의로 변할 수 없다.

현대 수정주의자들도 민주주의의 계급성을 모호하게 함으로써 결국 부르죠아 민주주의에 대한 환상을 조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들은 민주주의를 충분히 발양시킨다는 미명 하에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발전의 필수적 조건으로 되는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거부하며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와 당의 령도를 약화하는 데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항상 계급적 성격을 가지며 《순수 민주주의》, 《초계급적 민주주의》란 있을 수 없다.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는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강화하며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와 당의 령도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 ❊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발전시킴에 있어서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강화하는 것은 필수적 조건으로 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계급 사회에 있어서 어느 계급에도 속하지 않는 추상적 민주주의란 있을 수 없다. 맑스-레닌주의는 어떠한 류형, 어떠한 형태의 국가이든 불문하고 그것은 반드시 어느 계급의 독재이며 어느 계급의 민주주의라고 인정한다.

프로레타리아 독재 정권은 지주, 자본가 등 한 줌도 못 되는 소수 착취 계급에 대해서는 독재를 실시하며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 인민에 대해서는 민주주의를 실시한다.

레닌이 지적한 바와 같이 프로레타리

아 민주주의는 최고 형태의 민주주의다. 프로레타리아 민주주의는 그 어떤 다른 민주주의로 교체되는 것이 아니라 프로레타리아 독재 하에서 공산주의에로 가는 과정을 통하여 점차 완성되면서 나중에는 조락된다. 가장 완성된 민주주의는 고유한 의미에서 벌써 민주주의가 아니다.

독재를 떠난 《순수 민주주의》가 있을 수 없으며 민주주의를 떠난 독재가 있을 수 없다. 독재와 민주주의는 한 문제의 두 측면이다.

계급적 원쑤들을 진압하지 않고서는 인민들에게 민주주의를 보장할 수 없으며 반면에 인민들에게 민주주의를 보장하지 않고서는 그들에게 의거하여 계급적 원쑤들을 철저히 진압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

김 일성 동지가 지적한 바와 같이 《지주, 예속 자본가 기타 반동 분자들과 반혁명 분자들에게 자유와 권리를 줄 수 없다.…이들에게 자유를 준다는 것은 인민이 자유를 빼앗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광범한 인민에게 자유와 권리를 주기 위해서는 인민의 원쑤들로부터 자유와 권리를 박탈하여야 한다》(김 일성 선집 제 5 권, 126 페지).

사회주의 하에서 생산 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성된 이후에도 의연히 계급적 모순은 존재하며 계급 투쟁은 계속된다. 전복은 되였으나 아직 완전히 소멸되지 않은 낡은 세력들은 외부에 기대를 걸면서 공개적인 또는 은폐된 형태로 사회주의를 공격하며 자본주의 제도의 재생을 기도한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프로레타리아 독재와 프로레타리아적 규률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근로자들을 위한 민주주의가 충분히 보장될 수 없으며 불가피적으로 적대적 요소들이 조장 발전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는 프로레타리아 독재와 프로레타리아적 규률을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 당은 혁명 발전의 매 시기마다 계급 로선에 철저히 립각하여 적아를 엄격히 구분하고 인민의 락원을 다시 빼앗으려는 원쑤들의 기도를 철저히 폭로 분쇄함으로써 인민 대중에게 모든 자유와 권리와 복리를 보장하고 있다.

우리 당은 반혁명 분자들과의 투쟁에 광범한 인민 대중을 조직 동원하였으며 소수의 적대 분자들을 철저히 제압함과 동시에 각계 각층 군중을 대담하게 포섭하고 교양함으로써 인민 대중의 민주주의를 높이 발양시키고 있다.

독재와 민주주의를 대립시키며 프로레타리아 독재 하에서는 민주주의가 충분히 보장될 수 없는듯이 말하는 것은 맑스-레닌주의와 인연이 없다.

독재와 민주주의를 대립시키면서 프로레타리아 독재 하에서는 민주주의가 제한되고 민주주의의 전면적 발전은 그 어떤 독재를 초월한 조건 하에서만 비로소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사실 상 적아를 뒤섞어 놓고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거부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정치, 경제, 문화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로동 계급의 계급성을 말살하며 나라의 자유주의화를 실현

하자는 것이다.

프로레타리아 독재가 약화되고 나라의 자유주의화가 실현되는 데서는 자본주의 요소들이 자라 나고 부르죠아적 사조와 생활 양식이 조장되기 마련이다. 이렇게 되면 부르죠아 서방에 대한 환상적인 동경과 무비판적인 모방이 있게 되며 퇴폐적인 기풍이 수 많은 젊은 세대들과 인테리들을 휩쓸게 되고 개인 리기주의와 향락주의, 자유주의적 경향이 걷잡을 수 없이 자라 나게 된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사회 질서의 문란, 각종 범죄 행동의 범람을 막을 수 없으며 지어는 당과 국가의 비밀까지도 적들에게 서슴없이 팔아 먹는 현상을 산생시키게 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는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거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 *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높이 발양시키기 위해서는 당 및 국가 생활에서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의 원칙을 정확히 관철시켜야 한다.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는 당 및 국가 건설의 기본 원칙으로서 불가분리적인 두 개 측면 즉 중앙 집권적 측면과 민주주의의 측면을 가지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프로레타리아트의 해방은 개별적 로동자들의 단독적인 투쟁으로는 실현될 수 없다. 만약 그들이 단결하지 못 하고 무정부 상태에서 행동한다면 그들은 적에게 각개 격파당하고 말 것이다.

로동 계급은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 원칙에 의해 하나의 의지로 통일될 때에만 조직된 력량으로서의 전투력을 가질 수 있으며 자기들의 력사적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다.

김 일성 동지가 지적한 바와 같이 《자본주의를 전복하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승리를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당의 민주주의적 중앙 집권제 원칙에 립각한 강철 같은 통일이 필요하다》(김 일성 선집 제 6 권, 325 페지).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 원칙에 의거함으로써만 사회주의 경제를 관리 운영할 수 있으며 여기에 광범한 대중을 인입할 수 있다.

모든 생산 수단이 사회적 소유로 되여 있는 사회주의 하에서는 생산, 분배, 류통, 소비에 대한 국가의 중앙 집권적 관리와 통제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왜냐 하면 사회주의는 《중앙 집권화된 경제, 중앙으로부터의 경제의 건설이기 때문이다》(레닌 전집 제 28 권, 511 페지).

현대적 생산의 복잡한 제 과정을 관리하며 수백 수천의 사람들을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로 향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앙 집권적인 통일적 지도가 있어야 한다. 특히 사회주의 건설이 심화 발전됨에 따라 경제 건설의 규모와 범위가 확대되며 그 내부적 련관이 더욱 복잡해지는 조건에서 중앙 집권적 지도를 떠나서 생산의 관리 운영을 생각할 수 없다.

중앙 집권적 지도를 강화하는 조건하에서만 경제 문화 건설에서 근로 대중의 적극성과 자각적 열의를 더욱 높일 수 있다.

통일적 목적과 지향, 지도를 떠나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사실상 빈 말에 불과한 것이며 자유 방종을 찬미하는 것으로 된다.

민주주의만을 일면적으로 강조하고 중앙 집권제를 약화해도 안 되며 중앙 집권제 일면만을 강조하고 민주주의를 무시해도 안 된다. 이 두 측면을 정확히 결합시켜야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높이 발양 발전될 수 있다.

우리 당은 모든 부문에서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를 백방으로 강화함으로써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높이 발양시키고 있다.

우리 당은 온갖 낡은 사상 관습과의 투쟁을 강화하여 적들이 발붙일 수 있는 바탕을 제거하는 동시에 근로자들을 로동 계급의 혁명적 사상과 자각적 규률로 부단히 무장시키고 있다.

우리 당과 국가는 중앙 집권적 지도를 강화하면서 대중의 창조적 열의와 창발성을 높이였으며 또한 사회주의 건설이 진척됨에 따라 생산의 규모와 범위가 확대되고 현대화되는 조건에서 중앙에서의 통일적이고 집중적인 지도를 더 강화하는 동시에 지방의 권한을 확대하고 그 역할을 결정적으로 제고하는 대책을 취하였다.

이러한 결과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무궁무진한 창조적 열의와 창발성을 더욱 높이 발휘하고 있으며 국가 및 경제 관리에 적극 참가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광범한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를 향유하고 있으며 그것을 행사하고 있다.

우리의 경험은, 중앙 집권적 지도를 민주주의에 대립시키면서 중앙 집권제를 강화하려면 민주주의를 제한해야 하고 민주주의를 확대하려면 중앙 집권제를 축소해야 하는듯이 생각하는 것이 전혀 황당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소위 《중앙 집권제의 반대》, 무원칙한 《민주주의의 발양》 등에 대하여 떠든다면 이것은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를 약화하고 《지방 분권화》에로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를 약화하면서 《선거권》, 《지방적 창발성》, 《사회적 자치》, 《공민의 권리 평등》, 《자유》 등과 같은 민주주의의 국가 법률적 측면에 대해서만 일면적으로 강조한다면 이것은 민주주의의 사회 계급적 내용을 무시하는 것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부르죠아적 립장에로 굴러 떨어지는 것이다.

중앙 집권제를 말하지 않으면서 《민주주의》, 《자유》에 대해서만 강조하는 것은 당과 국가의 의식적 활동의 의의

를 낮추는 것이며 모든 것을 자연 발생성에 방임하는 속류 진화론적 립장인 것이다.

어떠한 립장은 객관적 법칙에 대한 인간의 의식적 리용이 가지는 의의를 저하시키며 인간의 자연적 본능과 감정을 절대화하면서 그의 사회 계급적 본질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것은 불가피적으로 자유 경쟁을 초래하며 정치, 경제, 문화, 사상 등 모든 분야에서의 부식 작용을 일으킴으로써 혁명 력량을 변질시키며 로동 계급의 통일과 단결을 파괴하고 그의 전투력을 마비시키는 데로 떨어지고 만다.

당 및 국가 생활에서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 원칙을 정확히 관철시켜야만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확대 발전시킬 수 있다.

*　　　*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당의 령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로동 계급의 최고의 정치적 조직인 당만이 사회주의 건설에서 대중이 나아갈 방향과 방도를 명백히 제시해 줄 수 있으며 대중을 사회주의 건설 위업의 정당성에 대한 신심으로 무장시킬 수 있으며 대중을 사회주의 건설에 옳게 조직 동원할 수 있다.

맑스-레닌주의당의 령도가 보장됨으로써만 계급 로선과 군중 로선을 정확히 관철시킬 수 있으며 당 및 국가 생활에서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 원칙을 정확히 관철시킬 수 있다.

특히 맑스-레닌주의당의 령도에 의해서만 인민 대중은 자기들의 의식성과 자각성을 부단히 제고할 수 있으며 자기들의 민주주의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며 국가 및 경제 관리에 자각적으로 참가할 수 있다.

당의 령도를 강화하지 않고 대중 속에서 당의 정치 사업과 교양 사업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개화 발전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당의 령도를 강화하여 전체 근로 대중을 사회주의 건설에로 인입하고 그들의 적극성과 창발성을 제고하며 국가 및 경제 관리에 광범히 참가시키는 조건에서만 성과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김 일성 동지는 《민주주의적 방향에로의 전진 여하와 민주화 여하의 중요한 표현은 국가를 운영하며 국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함에 인민들의 참가 정도의 여하에서 나타난다.》(《김 일성 선집 제 1 권, 1955년 판, 236 페지)라고 지적하였다.

우리 당의 경험은 당의 령도적 역할을 제고하는 것이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발양시키는 결정적 담보로 된다는 것을 잘 보여 주고 있다.

당의 령도를 강화한다는 것은 결코 당이 행정 경제 사업을 대행하는 것과는 인연이 없다. 그것은 오직 혁명의 참모부로서의 당의 키잡이의 역할을 제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당은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모든 분야에 걸쳐 해당 당 위원회를 최고 지도 기관으로 되게 함으로써 당 위원회의 집체적 령도가 더욱 강화되게 하였다.

공업과 농업에 새로운 지도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경제 관리에 대한 당 조직들의 령도적 역할이 더욱 제고되였으며 경제 지도에서 사람과의 사업이 첫 공정으로 되고 우가 아래를 도와 주는 정연한 사업 체계가 확립되였다.

모든 부문에서 해당 당 위원회는 당 조직들을 통하여 전체 당원들을 발동시키고 당원들은 전체 군중을 발동시키게 되였다.

당의 집체적 지도의 원칙이 철저히 실현됨으로써 대중의 민주주의적 의사와 창발적 의견들이 더 자유롭게, 더 적극적으로 발현되게 되였으며 모든 사업에서 정치 사업이 선행됨으로써 대중이 당 정책 관철에로 더 자각적으로 동원되게 되였다.

특히 청산리 방법에 의하여 관료주의와 형식주의가 극복되고 지도가 하부에 접근됨으로써 당과 대중과의 혈연적 련계가 더욱 강화되고 국가 및 경제 관리에 광범한 대중이 더 의식적으로, 적극적으로 참가하게 되였으며 그들의 지혜와 창발성이 남김 없이 발휘되게 되였다.

인민 경제 각 부문에서 널리 발전하고 있는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사회주의적 민주주의가 높이 발양되고 있는 가장 뚜렷한 표현이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 행정에서 우리 나라의 모든 근로자들은 경제 관리에 적극 참가할 뿐만 아니라 직접 관리자로 되며 모든 분야에 걸쳐 자기의 소질과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고 있다.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맑스-레닌주의 당을 정치적 령도 기관으로부터 하나의 토론 구락부로 전락시키고 당 기관을 경제 기관화함으로써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 생활의 모든 령역에서 당의 령도적 역할을 약화하고 있다. 그들은 특히 문학 예술 분야에 대한 당적 지도를 거부하고 자유주의화에로 나가는 것을 참다운 민주화의 표현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당의 령도적 역할을 약화하고 당의 정치 교양 사업을 약화하는 데서는 퇴폐적인 부르죠아 사상과 생활 양식의 침습을 막을 수 없으며 자본주의 요소들의 재생을 막을 수 없다.

《…당의 령도를 거부하는 것은 곧 혁명을 거부하는 것이며 자본주의에 대한 투항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의 령도를 거부하는 수정주의자들과 투쟁할 것은 물론이고 수정주의가 싹 틀 수 있는 온갖 불건전한 요소들과도 무자비하게 투쟁해야 한다》(김 일성 선집 제 5 권, 390 페지).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프로레타리아 독재,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 당의 령도와 대립시키면서 《민주주의》, 《자

유》에 대하여 일면적으로 떠드는 것은 순전히 공담이며 자기들의 파렴치한 수정주의적 책동을 은폐하기 위한 기만술책에 불과한 것이다.

이것은 정치, 경제, 문화, 사상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로동 계급의 계급성, 혁명성을 말살하고 프로레타리아적 규률을 약화하면서 부르죠아적 관계를 조장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주의에 대한 자본주의에로의 《평화적 진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미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도와 주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프로레타리아 독재와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 당의 령도를 부단히 강화하며 이와 배치되는 사소한 자유주의적 경향과도 날카로운 투쟁을 전개함으로써만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더욱 성과 있게 발전시킬 수 있다.

---

10 대 과업 수행을 위한 도당 위원회의 임무

정 지 환

최근 우리 당은 앞으로 1~2 년 동안에 전 당과 전체 인민이 력량을 집중하여 해결하여야 할 중심적인 전투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매개 도 앞에 공업, 농업 부문의 10 대 과업을 제시하였다.

김 일성 동지의 발기에 의하여 각도 부문별 10 대 과업을 설정한 우리 당의 금번 조치는 오늘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에서 도의 역할을 백방으로 제고함으로써 7 개년 계획을 성과적으로 완수하며 전반적인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촉진시킴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력사적인 우리 당 제 4 차 대회가 제시한 7 개년 계획의 강령적인 과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함에 있어서 금후 1~2 년간은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지난 3 년 남짓한 기간에 중공업의 골간에 살을 붙이며 그것을 더욱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기초 우에서 농촌 경리와 경공업을 급속히 발전시키며 인민 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힘을 집중할 데 대한 과업이 훌륭히 실행된 결과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 건설을 보다 전면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와 조건이 이루어지게 되였다.

지금 우리는 7 개년 계획 수행에서 결정적인 단계에 들어 섰다.

이러한 환경에서 이제 당이 제시한 도별 10 대 과업을 받들고 금후 1~2 년 동안에 완강하게 투쟁한다면 7 개년 계획 말에 예견된 기본적인 지표들을 훨씬 앞당겨 달성할 수 있으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로운 더욱 큰 비약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금번 당이 제시한 방침에 따라 우리 평안 북도 당 조직들 앞에도 새롭고 무거운 과업이 부과되였다. 김 일성 동지는 지난 8월 11일 평북도 당 위원회 확대 상무 위원회에서와 신의주시에서 있었던 공화국 창건 16 주년 기념 경축 연회에서 한 연설에서 우리 도 앞에 제기되는 10 대 과업과 그 수행 방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었다.

평북도 내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지금 수상 동지가 제시한 이 과업에 무한히 고무되여 그 관철을 위해 한결같이 일떠나 투쟁하고 있으며 7 개년 계획 기간에 도 앞에 부과된 영예로운 임무를 모든 분야에서 빛나게 완수할 굳은 결의에 충만되여 있다.

* *

각 도 부문 별 10 대 과업을 설정한 우리 당의 금번 조치는 현시기 우리 나라 도들에 조성된 제반 조건과 가능성들에 의거하여 도가 더 많은 일을 더욱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7 개년 계획

을 보다 훌륭히 완수할 수 있게 하는 획기적인 대책으로 된다. 그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의 현 단계에서 도가 차지하는 위치와 거기에 있는 커다란 예비를 과학적으로 타산한 데 기초하고 있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최근 년간 우리 나라의 도들은 사회주의 건설이 급속히 진척됨에 따라 나라의 경제 생활에서 더욱더 중요한 위치에 놓이게 되였으며 경제 조직자적 기능을 더한층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조건들을 가지게 되였다.

우리의 도들은 오늘 방대한 경제 사업들을 직접 조직 운영하며 지도하고 있다.

인민 소비품 생산에서 대규모 중앙 공업과 함께 지방 공업을 병진시킬 데 대한 당의 방침에 따라 최근 년간 우리 나라에서는 수 많은 지방 공업 기업소들이 새로 창설되였으며 많은 공업 기업소들이 중앙 공업 체계로부터 지방 공업에로 이관되였다.

우리의 지방 정권 기관들은 이 방대한 규모의 지방 공업 기업소들을 자기의 책임 하에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수 많은 농목장들과 수산 부문 기업소들, 도시 경영 및 도시 건설 기관들, 상업 기관들, 교육 문화 보건 기관들을 지도 관리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우리 당은 중앙 공업도 성 국들의 직접적인 지도 관리 하에 두면서 그에 대한 도당 위원회의 지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지금 우리의 도들이 관리하거나 지도하고 있는 공장, 기업소 수는 과거와 비할 수 없으리 만큼 많아졌으며 그에 따라 도의 생산 규모와 그 잠재력이 비상히 증대되였다.

우리 나라 도들의 생산 규모가 얼마나 방대한가 하는 것은 오늘 한 개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업 생산이 과거 북조선 인민 위원회가 관리하던 것 만한 량과 맞먹고 있다는 데서도 명백히 찾아 볼 수 있다.

과거에는 수공업적 기술에 기초한 몇 개의 수리 공장과 경공업 공장들, 소규모적인 광산 밖에 없었던 평북도의 경우만 놓고 보아도 오늘은 최신 기술로 장비된 수 많은 대규모적인 중공업 및 경공업 기업소들과 매개 시, 군에 평균 13 개에 달하는 320여 개의 지방 산업 공장들을 지도 관리하고 있다.

평북도는 우리 나라의 다른 모든 도들과 같이 위력한 공업 지대로 전변되였으며 중요한 식량 기지로 발전하였다.

오늘 평북도는 우리 나라 기계 제작 공업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가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전력 및 화학 공업과 경공업 기지를 가지고 있다. 평북도는 또한 우리 나라 농업 생산에서 큰 몫을 담당하고 있으며 서해 수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놀고 있다.

김 일성 동지는 우리 나라 인민 경제 발전에서 평북도가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위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평북도는 우리 나라에서도 공업의 비중이 대단히 큰 도이다. 평북도에는 발전소, 화학 공장, 광산, 탄광들도 있고 경공업 공장들도 있으며 또한 우리 나라 기계 제작 공업의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 있다. 금속 공업을 제외하고는 주요 공업 부문이 다 있다.

다시 말하면 평북도에는 우리 나라 경제 발전의 중요한 밑천이 있다》(김 일성 선집 제 4 권, 403 페지).

평북도는 오늘 75 톤 탑식 기중기, 4 립방 메터 엑쓰까와또르, 1,000 톤 프레스, 6 메터 호뼁, 400 마력 디젤 기관 등을 비롯하여 각종 광산 기계 설비, 공작 기계, 농기계 등 현대적인 기계 설비들과 각종 공구 등 나라의 기술 혁명 수행에서 절실히 필요한 생산 수단들을 다량 생산 공급하고 있으며 전국 전력 생산량의 34.8%, 알곡 생산량의 17%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금년에 대규모의 신의주 화학 섬유 공장이 건설됨으로써 평북도는 앞으로 년 1억 1천만 메터의 천을 짤 수 있는 2만 톤의 화학 섬유를 생산 보장할 수 있게 되였다.

평북도가 우리 나라 공업 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60년에 벌써 12.9%였으며 1962년에는 15.4%로 장성하였다. 도내 공업 총생산액은 1963년에 일제 말기에 비하여 66.3 배로 늘어 났다.

평북도는 우리 나라의 모든 도들과 같이 당 중앙 위원회와 김 일성 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발전된 사회주의적 공업과 농촌 경리를 가진 나라의 강력한 생산 기지로 되였다.

우리의 도들은 거대한 규모로 장성된 생산을 성과적으로 관리 운영하며 인민 경제 각 분야에 대한 경제 조직자적 기능을 원만히 실현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도 가지고 있다.

사회주의 건설에서 중앙의 통일적인 지도 하에 도의 역할을 부단히 높일 데 대한 당의 방침이 관철됨으로써 최근 년간 우리 나라 도들의 지도적 기능은 크게 확대되였다.

지금 우리의 도들에는 국가 계획 위원회 도 위원회, 도 농촌 경리 위원회, 도 건설 위원회, 도 경공업 위원회, 도 내무 총국 등 인민 경제에 대한 국가 지도 관리의 주요 기관들이 새로 창설 또는 정비되여 사업하고 있으며 각기 자기 지방의 구체적인 특성에 맞게 경제 발전을 촉진시키는 데 복무할 수 있는 중요한 과학 연구 기관들도 가지고 있다.

더우기 공업에 대한 도당 위원회들의 지도를 강화할 데 대한 당의 방침에 따라 도당의 경제 부서들이 튼튼히 꾸려지고 공장, 기업소들에 대한 담당 지도원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중요 공장, 기업소들에 대한 도당 위원회의 지도가 더욱 강화되였다. 대안의 사업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공장, 기업소 최고 지도 기관으로서의 공장 당 위원회의 령도적 역할도 현저히 제고되였다.

이 모든 것은 오늘 우리 나라에서의 도가 당 중앙 위원회의 지도 하에 도내 경제 사업 전반을 틀어 쥐고 그에 대한 기동적이며 구체적인 지도를 보장할 수

있게 되였으며 생산 장성의 모든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 동원하고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경제 발전을 강력히 촉진시키는 데 적극 기여할 수 있게 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나라의 도들은 공업과 농업 및 상품 류통을 직접 조직하고 지도하는,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당과 국가의 정책을 집행하는 중요한 단위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더욱더 높일 수 있게 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이제 문제로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현시기 우리 나라의 도들에 조성된 제반 조건과 생산 잠재력을 효과적으로 동원 리용함으로써 도들로 하여금 나라의 경제 발전을 촉진시키는 데 더 잘 복무할 수 있게 하며 도 내의 모든 력량을 7 개년 계획 완수에로 집중케 하는 데 있다.

사실 상 우리의 도들이 관리하는 생산의 규모가 비상히 증대되였으며 또한 도의 경제 조직자적 기능을 높일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구비된 오늘에 와서 도의 력량을 어떻게 조직 동원하는가 하는 문제는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시킴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문제의 하나로 제기된다.

도가 일을 잘 하는가 못 하는가, 바로 여기에 따라 오늘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의 성과가 크게 좌우되게 되였다.

김 일성 동지는 이미 우리 나라 인민경제의 발전 수준이 매우 높고 그 내부적 련계가 아주 복잡하여진 새로운 조건에서도 특히 도당 위원회들의 역할을 높일 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 나라 공업을 성과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서는 성, 관리국들의 지도와 함께 공업에 대한 도당 위원회들의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이것은 최근 년간에 우리가 공업을 지도하는 행정에서…도달한 중요한 결론이다》(《모든 힘을 여섯 개 고지의 점령을 위하여》).

각 도 부문 별 10 대 과업을 설정한 우리 당의 금번 조치는 현시기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의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 것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도들로 하여금 자기 앞에 부과된 중심적인 목표들을 뚜렷이 알고 생산 장성의 모든 예비와 가능성을 다 동원하여 그것을 해결하는 데 력량을 집중하며 당 정책 관철에서의 도의 책임성을 더욱 높일 수 있게 함으로써 7 개년 계획의 성과적인 완수를 보장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또한 그것은 매개 도들이 처한 구체적인 자연 경제적 조건들과 특성에 맞게 도의 경제 발전을 보다 급속히 촉진시킬 수 있게 함으로써 국내 전반적 지역들의 발전을 가장 합리적으로 보장하게 하며 나라의 경제 생활에서 도의 역할을 더한층 높일 수 있게 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조성한다.

인민 경제 계획 수행에서 도 단위 중심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도의 력량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조직 동원케 하며 도의 경제 발전을 촉진시키는가 하는 것은 지난해 평북도에 대한 현지 지도시에 주신 김 일성 동지의 교시 관철을 위한 우리의 투쟁 경험을 통하여서도 명백히 실증할 수 있다.

김 일성 동지는 지난해 10월, 평북도에 대한 현지 지도에서 금년에 우리 도 앞에 제기되는 전반적인 과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그 중에서도 특히 신의주 화학 섬유 공장의 건설과 신도 갈밭 조성 공사, 평양—신의주 간 철도 전기화 공사 등 기본 건설과 공업 및 농업 부문에서 화력을 집중하여 점령하여야 할 중점적인 고지들을 제시하여 주었다.

이것은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7 차 전원 회의 결정 관철을 위하여 일떠선 도내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명확한 투쟁 목표로 되였으며 도당 위원회가 중심 고리를 놓치지 않고 거기에 력량을 집중함으로써 도 앞에 부과된 모든 과업을 성과적으로 해결하여 나갈 수 있게 하였다.

도당 위원회는 전국의 지원 하에 수상 동지가 제시한 이 중점적인 고지들을 점령하는 데 도 내의 모든 력량을 조직 동원함으로써 그 규모에 있어서 아주 방대한 기본 건설과 대자연 개조 사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었으며 공업과 농업 생산에서 큰 혁신을 일으킬 수 있었다.

실로 매해에 걸쳐 현지 지도를 할 때마다 도가 해결하여야 할 전반적인 사업과 함께 중심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여 준 김 일성 동지의 교시는 지난 시기 도당 위원회가 도 내의 경제 사업 전반을 장악하고 중심 고리를 정확히 풀어 나갈 수 있게 한 기본 요인으로 되였다.

이러한 모든 사실은 각 도 부문 별 10 대 과업을 설정한 우리 당의 조치가 현시기 우리 나라 도들에 조성된 제반 조건과 가능성들에 의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민 경제 계획 수행에 대한 우리 당의 실천적인 지도 경험을 통하여서도 그 우월성이 이미 확증된 가장 합리적인 대책으로 된다는 것을 힘 있게 증명하여 주고 있다.

* *

우리 나라 서북방의 위력한 공업 지대이며 중공업과 경공업 뿐만 아니라 농업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평북도 앞에는 오늘 다른 모든 도들과 함께 7 개년 계획의 수행과 나라의 전반적인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하고도 영예로운 임무가 부과되여 있다.

당이 제시한 10 대 과업에 따라 우리는 앞으로 도 내의 연료— 동력 공업과 광업, 기계 제작 공업, 화학 공업 등 기간적인 중공업 부문의 발전에 계속 중요한 력량을 돌리는 한편 경공업과 농촌 경리의 발전에서 결정적인 전진을 이룩하여야 한다. 1966년에 가서 평북도에서는 지난해보다 2 배나 더 많은 석탄과 광석을 캐 내야 하며 금속 절삭 기계의 생산량은 2 배 이상, 엑쓰까와또르 생산량은 1.3 배이상, 디젤 기관 생산량

은 1.9 배 이상, 직물 생산량은 1.8 배 이상, 수산물 생산량은 1.7 배 이상 각각 장성시켜야 한다. 또한 이 기간에 우리는 알곡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증대시켜 식량의 여유를 더 많이 조성하며 축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주민들에게 더 많은 육류를 공급해야 한다.

최근 1~2 년 간에 평북도에서는 도내의 전반적인 문화 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 데서도 큰 전환을 일으킬 것이다.

우리는 이 모든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가까운 기간 내에 평북도를 더욱 발전된 공업, 농업 지대로 전변시킬 것이며 평북도로 하여금 전반적인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하는 데 보다 적극적인 기여를 하도록 할 것이다.

오늘 당이 제시한 공업, 농업 부문의 10 대 과업을 관철함에 있어서 도내 경제 발전에 대한 도당 위원회의 지도를 강화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제기된다.

우리 당 중앙 위원회는 이미 도내 경제 발전에 대한 도당 위원회의 지도를 강화할 수 있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이제 도가 자기 앞에 부과된 과업을 잘 수행하는가 못 하는가 하는 문제는 결정적으로 도당 위원회의 사업 여하에 달리게 되였다.

도당 위원회는 도내 살림살이 전반에 대한 주인이며 그의 제 1 차적인 혁명 과업도 도내 경제 발전에 대한 지도이다.

김 일성 동지는 《자기 도내의 경제 발전을 지도하는 것이 도당 위원회의 제 1 차적인 혁명 과업이다. 이 과업을 어떻게 실행하는가에 따라서 도당 위원회가 혁명 과업을 잘 실행하는가 못 하는가 하는 것이 평가될 것이다.》(《모든 힘을 여섯 개 고지의 점령을 위하여》)라고 말씀하였다.

도내 경제 발전에 대한 도당 위원회의 지도를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도당 위원회가 당 정책을 튼튼히 틀어 쥐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직 정치 사업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당 중앙 위원회가 도 앞에 제시한 과업을 전반적으로 장악하고 그 집행을 위한 구체적인 조직 사업을 빈틈 없이 짜고 들어 하나하나 풀고 넘어 갈 때 당 정책을 성과적으로 집행하여 나갈 수 있다.

이에 있어서 우리는 우선 도 내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현시기 각 도 부문별 10 대 과업을 제시한 우리 당의 의도와 도 앞에 제기된 과업, 이 과업의 해결이 7 개년 계획 수행에서 가지는 의의와 우리 생활에 가져다 줄 전망을 계속 광범히 해설 침투시킴으로써 그들이 명확한 투쟁 목표와 전망을 가지고 일하도록 하는 데 선차적인 주목을 돌리고 있다.

특히 도당 위원회는 도 내의 모든 지도 일'군들이 누구보다도 먼저 당 정책과 최근 년간 평북도에 대한 현지 지도에서 주신 김 일성 동지의 교시를 철저히 파악함으로써 그것을 관철하는 데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열성과 창발성을

더 잘 불러 일으키게 하며 공화국 창건 16 주년 기념 행사를 계기로 앙양된 도내 근로자들의 충천된 기세를 10 대 과업 수행을 위한 투쟁에서 계속 견지하도록 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도당 위원회는 10 대 과업 관철을 위한 정치 사업을 선행시킴과 함께 매개 부문에서 당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 나타날 수 있는 편향을 미리 방지하며 이 기간 중심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력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청수 지구를 비롯한 중요 생산 및 건설 현지에서 도당 위원회 확대 상무 위원회를 열고 구체적인 집행 대책들을 사전에 토의 강구하는 데 큰 주목을 돌리고 있다. 우리는 이미 도당 대표자회에서 10 대 과업 관철을 위해 제기되는 사업을 전반적으로 포치하였다.

도 앞에 제기된 과업이 매우 복잡하고 방대한 조건에서 도 내의 각급 당 조직들 특히 시, 군당 위원회들의 역할을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더우기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도시와 농촌을 련결시키는 거점으로서의 군의 역할을 제고하며 군 내의 모든 력량과 예비를 10 대 과업 관철에로 조직 동원하기 위하여서는 군 사업의 모든 부문을 장악하고 지도하는 군당 위원회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는 도 내의 각급 당 조직들 특히 시, 군당 위원회들을 더 잘 꾸려 주며 그 사업 수준을 한층 더 제고시킴으로써 모든 당 조직들이 당 사업을 보다 정상화하며 계획적으로 진행하도록 적극 지도 방조할 것이다.

동시에 도 내의 모든 시, 군들과 중요 기업소들에 명년과 명후년에 도달하여야 할 중심 목표를 정확히 설정하여 줌으로써 10 대 과업 수행에서 시, 군당 위원회들의 역할과 책임성을 제고하며 모든 력량을 이 기간에 해결하여야 할 중심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집중하도록 하고 있다.

오늘 당이 제시한 10 대 과업을 성과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중요 고리는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기술 혁신 운동을 더욱 강화하고 로동 행정 사업을 일층 개선함으로써 로동 생산 능률과 종업원 1 인 당 생산액을 결정적으로 제고하는 것이다. 지금은 공업이나 농업, 그 어느 부문을 물론하고 기술 혁신이 없이는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다.

우리는 도 내의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우선 앞으로 남은 기간에 금년도 인민 경제 계획을 성과적으로 결속 짓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는 동시에 있는 설비, 있는 로력, 있는 자재를 가지고 더 많이 생산하여 10 대 과업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예비 탐구 사업을 전군중적 운동으로 강력히 조직 전개하도록 하고 있다. 예비 탐구 사업의 성과적인 보장을 위하여 도당 위원회는 매개 부문마다 한 단위에 지도를 집중하여 모범을 창조하며 그 경험을 전반적으로 일반화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우리는 도 내의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비생산 로력을 극력 축

소하고 생산에 직접 종사하는 일’군들의 수를 증대시키며 이미 경험을 통하여 그 우월성이 확증된 작업반 간의 련합 혁신 운동과 작업 공정들 간에 련대적으로 질을 높이기 위한 운동을 더욱 조직화함으로써 이 기간에 종업원 1 인당 생산액을 2 배 이상 제고하며 제품의 질을 전반적으로 한 계단 더 제고하도록 할 것이다.

농촌 경리 부문에서도 우리는 이 기간에 기계화를 강력히 추진시키며 수리화의 성과를 더욱 확대 공고히 하는 한편 전기화와 화학화를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시킴으로써 알곡의 정당 수확고를 결정적으로 높이며 적은 사료와 로력으로 더 많은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전개할 것이다.

10 대 과업 수행을 위한 도당 위원회의 지도를 강화함에 있어서 도당 위원회 부서들 특히 경제 부서들과 기업소 담당 지도원들의 역할을 높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우리는 도당 위원회 조직부와 선전 선동부가 더 많이 공장, 기업소, 농촌에 접근하여 간부들과의 사업, 당원들과의 사업, 군중과의 사업을 강화하고 당 조직 정치 사업을 선행하도록 하는 동시에 경제 부서들이 반드시 전망적이고도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생산 현장에 침투하여 지도 방조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도당 위원회는 공장, 기업소들에서의 당 조직 정치 사업 정형, 생산 계획 실행 정형들을 계통적으로 료해 장악하고 걸린 고리를 풀어 주며 공장 당 위원회의 《키잡이》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조를 줄 수 있을 것이다.

현시기 도내 경제 발전에 대한 도당 위원회의 지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의 다른 하나는 도의 모든 지도 일’군들이 정치 리론 수준을 부단히 높이며 공업과 농업, 문화 혁명에 대한 지도 리론을 소유하는 것이다.

김 일성 동지가 말씀한 바와 같이 지도 일’군들이 정치 리론을 모르고 경제 지식이 없으면 당 정책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없으며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도 바로 세울 수 없으며 사업에서 아무러한 창발성도 발휘할 수 없다.

우리가 하여야 할 사업 범위가 넓어지고 사업 대상이 많아진 지금에 와서 도 내의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 특히 혁명의 지휘 성원들인 간부들이 리론 수준과 지도 능력을 높이는 것은 모든 문제 해결의 기본 열’쇠로 된다.

우리는 사회주의의 전면적 건설 시기에 제기되는 그 모든 새롭고 방대한 과업을 능숙하게 처리해 나가기 위하여 또한 우리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위하여 계속 맑스-레닌주의 리론과 우리 당의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하며 기술 경제 지식을 더 많이 습득하여야 한다.

우리는 도 내의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 특히 지도 일’군들 속에서 학습에 대한 자각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학습하는 것을 당 생활의 기본 문제로 삼도록 적극 지도 방조하여야 한다. 동시에 도당을 비롯한 도급 지도 기관의 책임적인 일’군들이 학습에서 이신작칙하며 하부 일’군들의 학습을 일상적으로 지도 통제함으로써 전 당에 학풍을 수립할 데 대한 김 일성 동지의 교시를 실생활에서 구현하여야 한다.

이에 있어서 우리는 특히 도 내의 모든 지도 일’군들과 시, 군당 조직들이 지난 시기 일’군들 속에서 학풍을 수립하고 정치 리론 수준 제고와 함께 한 가지 이상의 기술을 소유하기 위한 투쟁에서 훌륭한 모범을 보여 준 창성군과 벽동군 당 조직들의 경험을 본받도록 하는 데 큰 관심을 돌리고 있다.

지난 시기 창성군에서는 간부들 속에서 학풍을 수립하며 일’군들의 지도 리론을 부단히 높일 데 대한 수상 동지의 교시 관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 결과 지난 해에 벌써 군내 협동 농장들과 공장 관리 일’군들 중에서 50여 명이 고등 경공업 학교와 고등 농업 학교를 졸업하였으며 금년에는 또다시 48 명의 관리 위원장과 직장장들이 고등 기술 학교를 졸업하는 훌륭한 모범을 창조하였다.

창성군과 함께 벽동군에서도 지도 일’군들이 자기들의 리론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한 결과 오늘 지방 산업의 많은 일’군들이 고등 경공업 학교를 졸업하고 기수의 대렬에 들어서게 되였다.

우리는 창성군과 벽동군의 이러한 경험을 일반화함으로써 도급 지도 간부들로부터 도 내의 공장과 농촌의 지배인, 관리 위원장, 작업반장에 이르는 모든 지휘 성원들이 모두 당 정책에 정통하며 한 가지 이상의 기술을 소유함으로써 당이 제시한 10 대 과업 수행에서 능동적인 역할을 높일 수 있도록 지도하여 나갈 것이다.

동시에 우리는 근로자들 속에서 공산주의 교양과 계급 교양을 혁명 전통 교양과 밀접히 결부시켜 전면적으로 전개함으로써 그들을 당과 혁명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는 견결한 혁명 투사로, 참된 공산주의 교양자로 육성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강화할 것이다.

오늘 당이 제시한 10 대 과업을 성과적으로 관철하기 위하여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는 또한 일’군들 속에서 혁명적 사업 기풍과 사업 방법을 보다 철저히 수립하는 것이다.

다 아는 바와 같이 혁명 과업 수행의 성과 여부는 지휘 성원들인 간부들의 사업 작풍, 그들의 사업 방법에 크게 의존한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지도 일’군들이 당 정책의 집행에 대하여 언제나 관심하며 당과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항상 머리를 쓰며 강의한 의지를 가지고 일단 시작한 일은 이악하게 달라붙어 끝까지 밀고 나가며 모든 문제 해결에서 자력 갱생의 높은 정신을 발양할 때 우리 사업에서는 큰 성과가 있게 되며 인민들의 살림은 더욱 유족하여질 것이다.

일’군들의 사업 작풍을 개선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간부들이 이신작칙하는 것이다.

지난 시기의 모든 경험은 지도 일’군

들이 흙짐을 한 번 져도 먼저 지고 돌을 한번 날라도 먼저 나르는 사업 작풍을 견지할 때 군중은 당이 준 혁명 과업을 실천하기 위하여 더욱 분발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우리는 지난 시기 지방 산업과 산 지대 농촌 경리를 발전시킬 데 대한 수상 동지의 교시 관철을 위하여 군당 일'군들을 비롯한 군급 지도 일'군들이 군중의 앞장에 서서 솔선 모범을 보임으로써 군 사업에서 큰 혁신을 일으킨 창성군과 벽동군 당 일'군들처럼 일함으로써 군중들로 하여금 당 정책 집행에 자각적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동원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대안의 사업 체계와 청산리 방법을 계속 심화 발전시킴으로써 경제 지도와 기업 관리에서 당의 혁명적 군중 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평북도 당 위원회는 도 내의 모든 당 조직들과 지도 일'군들이 당 정책 집행에서 높은 책임성을 견지하고 항상 꾸준하고 세심하게 일하며 관료주의와 형식주의 등 온갖 낡은 사업 방법의 잔재를 완전히 근절하고 청산리 정신, 청산리 방법을 더욱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대중을 당이 제시한 혁명 과업 수행에로 한결같이 조직 동원할 것이다.

우리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계속 전진, 계속 혁신하여 당 중앙위원회와 김 일성 동지가 평북도 앞에 제시한 영예로운 10 대 과업을 빛나게 실현할 것이다.

종업원 1 인 당 생산액 제고의 중요 예비

석 중 봉

기업 관리 운영과 종업원 1 인 당 생산액

당은 오늘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종업원 1 인 당 생산액을 결정적으로 높일 것을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다.

종업원 1 인 당 생산액을 높이는 것은 생산을 급속히 장성시키고 국가 축적과 인민 소비를 동시에 장성시킴에 있어서 실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로동 생산 능률과 종업원 1 인 당 생산액을 높여야만 제한된 로력을 가지고서도 생산을 급격히 장성시킬 수 있으며 국민 소득을 증대시켜 나라의 축적과 인민 생활 문제를 동시에 성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은 10 대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7 개년 인민 경제 계획을 완수하기 위한 중요 고리를 바로 종업원 1 인 당 생산액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데서 찾고 있다.

종업원 1 인 당 생산액을 높이는 것은 매개 공장, 기업소들의 사업을 개선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종업원 1 인 당 생산액 제고 문제가 매개 공장, 기업소의 사업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 만경대 건설 기계 공장의 실례가 잘 보여 준다.

그것은 우선 공장에 부과된 국가 생산 계획 과제를 성과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결정적 고리이다.

오늘 모든 공장, 기업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공장 앞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로력을 가지고 생산을 계통적으로 증대시켜야 할 중요한 과업이 나서고 있다.

례컨대 우리 공장의 1962년 생산 계획 과제는 1961년에 비하여 148.8%로 장성한 반면에 로력은 같은 기간에 110% 밖에 장성하지 않았다. 특히 1964년 상반년의 경우에는 생산 과제가 1963년 상반년 실적에 비하여 130%로 장성하였으나 로력은 같은 기간에 단 103% 밖에 장성하지 않았다.

이런 조건 하에서 생산 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예비는 기술 혁

진과 로동 행정 사업을 강화하여 종업원 1 인 당 생산액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것이였다.

우리 공장에서는 1961년부터 1963년까지의 3 년 간에 생산 실적이 년 평균 약 30%씩 장성하였는데 그것의 근 80%가 종업원 1 인 당 생산액 제고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종업원 1 인 당 생산액의 제고는 기업소의 재정 토대를 강화하며 로동자들의 수입을 증대시키고 그들의 생산 열의를 높여 주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공장, 기업소의 재정 토대의 공고성을 보여 주는 중요한 지표는 국가 예산에 대한 납부 계획을 얼마나 초과 완수하고 그것을 어떻게 증대시키며 기업소 기금을 얼마나 형성하는가 하는 것 등이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국가 납부의 완수와 기업소 기금의 다소는 종업원 1 인 당 생산액을 높이는 사업과 관련된다.

로동 생산 능률을 높이고 로력을 적극적으로 절약하여 종업원 1 인 당 생산액을 높임으로써만 국가의 생산, 원가 및 리윤 과제를 초과 수행할 수 있으며 기업소 기금도 많이 형성할 수 있다.

우리 공장에서 국가 예산에 대한 납부액이 1961년을 100으로 할 때 1962년에 453%로, 금년 상반년에 1961년 상반년에 비하여 일약 904%로 증가한 것도 바로 종업원 1 인 당 생산액을 높인 것과 크게 관련되고 있다.

종업원 1 인 당 생산액의 제고, 생산 및 국가 예산에 대한 납부 계획의 초과 수행은 기업소 기금의 점차적 증대를 가져 오게 함으로써 공장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더욱 강화하고 기업소의 살림살이도 보다 더 풍부하고 알뜰히 꾸릴 수 있게 하였다.

이것은 로동자들의 수입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었는데 로동자들의 총수입 중에서 계획 초과 수행에 의하여 추가적으로 지불 받는 액이 근 10%에 달하고 있는 사실만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로동자들의 생활이 보다 윤택해지고 로동이 보다 흥겨워지니 그들의 생산 열의도 더욱 높아지고 생산은 계속 올라만 간다.

지난 기간 우리 공장은 종업원 1 인 당 생산액을 높일 데 대한 당의 방침을 관철하는 데서 일정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구분 ＼ 년도	1961	1962	1963	1961년상반년에비한 1964년상반년
생산 실적 장성	100	148.8	158	210
로력 장성	100	110	110.7	122
종업원 1 인 당 생산액 장성	100	135	143	174
생산 계획 수행률	103.5	101.5	108.7	104.8

* 1962년에 일부 제품의 도매 가격이 인하된 것을 고려한다면 종업원 1 인 당 생산액 성장률은 더 높을 것이다.

우의 표는 우리 공장에서 종업원 1 인 당 생산액을 높임으로써 상대적으로 적은 로력으로 생산액을 빨리 장성시켰고 해마다 국가 생산 계획 과제를 초과 수행하였다는 것을 보여 준다.

우리는 종업원 1 인 당 생산액을 높이기 위한 투쟁 과정에서 당이 강조하는 바와 같이 기술 혁신을 추진하며 로동 행정 사업을 개선하는 바로 여기에 가장 중요한 예비가 있다는 것을 체험하였다.

종업원 1 인 당 생산액 제고의 결정적 고리는 기술 혁신에 있다

기술 혁신을 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기술, 새로운 선진적인 작업 방법을 생산에 광범히 도입함이 없이는 로동 생산 능률과 종업원 1 인 당 생산액을 높일 수 없다.

기술 혁신을 추진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선 지도 일'군들로부터 매개 로동자들에 이르기까지 현시기 기술 혁신이 없이는 종업원 1 인 당 생산액을 결코 높일 수 없다는 것을 자기 공장의 구체적 실정에서 명백히 인식하는 문제이다.

현시기 기술 혁신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더 전진하느냐, 그 자리에서 답보하느냐 하는 것과 직접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기본 생산을 시작한 지가 별로 오래되지 않았고 해당한 기계 설비들이 완전히 갖추어지지 않았던 우리 공장에서 기술 혁신은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였다.

각이한 제품을 생산하던 작은 기업소들이 하나의 건설 기계 공장으로 통합된 당시만 하여도 공장에는 생산 설비들이 극히 불비하였고 생산 공정 간에는 심한 불균형이 조성되고 있었으며 작업 공정들에는 손로동이 적지 않게 지배하고 있었다.

이러한 조건에서 기술 혁신을 더욱 강력히 촉진시켜 부단히 새로운 기술을 도입함이 없이는 공장에 부과되는 생산 과제를 도저히 수행할 수 없었는바 기술 혁신은 우리 공장에서 그야 말로 사활적인 문제였다.

공장 초급당 위원회는 당 위원회를 소집하여 공장의 바로 이와 같은 구체적 실정을 가지고 진지하게 토의하고 해당한 대책들을 세웠다.

당 위원회는 우선 대중들로 하여금 기술 혁신에 자각적으로 동원되게 하며 그들의 창조적 적극성을 높여 주는 데 선차적 관심을 돌렸다.

당 조직들과 근로 단체들, 선전 선동 수단들이 여기에 동원되였다.

당 위원회 위원들과 지도 일'군들은 강연 제강을 들고 작업 현장으로 나갔으며 선동원들과 학습 강사들까지도 로동자들 속에 침투하였다.

종업원들이 매 시기 공장 앞에 제기되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기술 혁신이 가지는 중요성을 사실을 통하여 인식하게 되자 청년 가공 직장을 비롯한 모든 직장들에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창의 고안, 합리화안들이 나오기 시작하였으며 《한 달에 한 건 이상 새 기술 도입 운동》과 《생산의 전문화와 기계화, 자동화를 위한 작업반 간의 련합 혁신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게 되였다.

지금 우리 공장에서 청년들은 기술 혁신의 앞장에 섰고 《늙은 축》도 뒤떨어질세라 이를 악물고 달려 들고 있다.

특히 지난 해까지만 하여도 《우리들이 어떻게 창의 고안을 하겠는가》라고 하던 녀성 로동자들 속에서도 기술 혁신안이 련'이어 제기되고 있다. 청년 가공 직장 소형 선반공 리 보부 동무가 연유 탕크 스핀돌 가공 지구와 벨트콘베야 로라 상하부 덮개 가공 지구를 창안 도입하여 로동 생산 능률을 2 배 이상으로 높인 데 뒤'이어 금년 상반년에만도 녀성들이 제기하여 생산에 도입한 창의 고안은 7 건에 달한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공장의 전체 종업원들이 기술 혁신에 한결같이 떨쳐 나섰다는 것을 잘 말해 준다.

전체 종업원들이 당이 제시한 기술 혁명 과업 수행에 한 사람 같이 동원됨으로써 우리 공장에서는 금년 상반년에만도 171 건의 기술 혁신안이 생산에 도입되였다. 결과 종업원 1 인 당 생산액은 금년 6 개월 동안에 128%로 높아졌다.

기술 혁신을 촉진하며 종업원 1 인 당 생산액을 제고하는 과정에서 우리 공장이 얻은 중요한 경험의 하나는 기술 발전 계획을 정확히 작성하며 그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조직 사업을 세밀히 진행하는 것이다.

로동자들의 개별적인 창안 사업을 공장적인 기술 발전 계획으로 정확히 종합하여 옳바른 기술 발전 계획을 작성함으로써 대중의 높아진 창조적 열성에 목적 의식성을 부여하는 것은 기술 혁신의 성과를 높이며 종업원 1 인 당 생산액을 제고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기술 발전 계획을 정확히 작성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제기되는 것은 부과된 국가 생산 계획 과제와 밀접히 결부하여 기술 발전 계획을 세우며 무엇보다도 국가 생산 계획 과제를 초과 수행하는 방향에서 기술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문제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술 발전을 위한 모든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동원하며 광범한 대중을 기술 발전 계획 작성에 적극 인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장 초급당 위원회는 참모 부서들에서 기술 발전 계획 예비안을 직장 별, 작업반 별로 작성케 하고 참모 성원들이 그것을 가지고 생산 현장에 내려 가 로동자들과 구체적으로 토의케 하였다. 토의 과정에서는 기술 발전 계획의 실행의 가능성 여부를 정확히 타산하였는데 례하면 로동자들의 숙련 정도, 기술 발전 계획 수행과 기본 생산 과제 수행과의 호상 관계, 기술자들과 로동자들 간, 로동자 호상간, 직장 및 작업반 호상간의 협조 문제, 기계 설비들의 기술 조건과 성능, 자재를 비롯한 기타 일체 보장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타산하였다.

예비안은 공장 참모 회의에서 총괄적으로 심의한 후 당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토의 비준하여 완전히 법적 성격을 띤 과제로서 직장과 작업반에 내려 간다.

이와 함께 공장 당 위원회는 기술 발전 계획 수행을 위한 모든 물질 기술적 조건들을 마련해 주는 데 중요한 관심을 돌렸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공장에서는 대중의 기술 혁신 운동에 목적 의식성을 부여하였을 뿐 아니라 기술 발전에 의거하여 국가 생산 과제를 초과 수행할 수 있는 전제를 조성하였다.

지금 우리 공장의 전체 로동자들과 기술자들은 자신들이 작성한 기술 발전 계획을 매달, 매 분기 별로 넘쳐 수행하고 있다.

기술 혁신을 촉진하며 종업원 1 인 당 생산액을 높이는 데서 우리가 체험한 중요한 경험의 다른 하나는 사소한 혁신안이라도 소홀히 하지 말고 그것을 적극 조장 발전시키는 것이 전면적 기술 혁신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는 것이다.

자연 및 사회 현상 일반에서와 마찬가지로 기술 혁신에서도 초기에는 사소한 것 같던 새로운 기술, 선진적인 작업 방법이 점차 큰 것에로 발전되며 확대되는 실례가 허다하다. 더우기 대중 속에서 나오는 것들 중에는 이러한 것이 많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 속에는 《큰》 혁신안만을 바라보면서 《작은》 혁신안을 홀시하는 그릇된 관점이 남아 있으며 이것이 기술 혁신에 대중이 참가하는 것을 적지 않게 저애한다.

우리 공장에서도 초기 일부 동무들은 자그마한 지구들이 창안된 것을 보고는 《그 따위 지구나 만드는 것도 창안인가》라고 하였다.

당 위원회는 이러한 그릇된 관점을 극복하고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초기에는 작은 것 같이 보이는 창안이라도 그것이 완성되여 생산에 도입 일반화될 때 국가에 얼마나 큰 리익을 주는가를 실물로 보여 주게 하였다.

례컨대 당 위원회는 벨트콘베야의 카리아 로라 생산에서 나사와 덮개 대신에 링그를 사용해 보자는 로동자들의 제의를 적극 지지하고 속히 완성하도록 방조해 준 결과 초기에는 그것이 극히 작은 것 같이 보였으나 짧은 기간 내에 생산에 도입 일반화됨으로써 막대한 로력을 절약할 수 있게 하였다.

여기에서 교훈을 얻은 로동자들은 기술 혁신 운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였으며 기술 혁신은 점차 큰 것에로 발전하여 갔다.

27 마력 복동 권양기 생산에서 종전에는 쌍 치차를 설치하던 것을 하나로 개조하고 바라반의 두께를 얇게 하는 등 부분품들의 설계를 개선함으로써 년간을 통하여 84 톤의 강재와 4,740 공수의 로력을 절약하였으며 원가를 30% 나 낮추었다. 이 외에도 12,5 톤 급 문형 기중기, 3.5 톤 급 천정 기중기, 철판 완곡기, 빠우 연마기, 탁상 볼반, 철판 진동 절단기 등 기본 생산 부문에서만도 10여 대의 기계 설비들을 자체로 만들어 공장의 기술 장비를 강화하고 생산 공정 간의 옳은 균형을 보장하여 생산의 률동성을 보장하였다.

이 과정에서 특히 로동자들과 기술자들 간의 창조적 협조의 강화는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졌다.

례컨대 생활 필수품 직장에 내려 간 기사, 기수들은 석유 곤로의 심지관 제작을 프레스화하자는 로동자들의 발기를 적극 지지하여 자신들이 직접 일부 작업을 담당 수행하면서 제기되는 기술적 문제들을 제때에 해결해 준 결과 짧은 기간 내에 성능 높은 프레스를 만들어 낼 수 있게 하였다.

로동자들과 기술자들 간의 창조적 협조의 강화는 이 직장의 기계화 수준을 95%로 높이고 (그 중 프레스화가 80%) 쌍 석유 곤로를 《평양 상품》 제 7 호로 등록시킬 수 있게 한 중요한 요인의 하나였다.

최근 공구 및 기계화 직장 로동자들은 기사, 기수들의 방조 밑에 완전히 자동화된 2 메터 호뼁반을 완성하였다.

우리의 경험에 의하면 기술 혁신의 촉진과 종업원 1 인 당 생산액 제고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로동자들의 기술 기능 수준과 일반 지식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대중적 기술 혁신 운동은 전체 로동자 대중의 기술 기능 수준과 일반 지식 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과 떼여서 생각할 수 없다.

이 문제 해결에서 공장 당 위원회가 중요하게 관심을 돌린 것은 기능 별, 수준 별로 되는 기술 학습 체계를 확립하고 유능한 기술자들을 학습 강사로 선발 배치하여 기술 및 일반 지식 학습을 정상적으로 강화하는 것과 함께 특히는 기술자들이 직접 생산 현장에 내려 가 생산 과정에서 로동자들을 가르치고 도와주도록 하는 것이였다.

로동자들의 기술 기능 수준 제고에서 열 마디의 연설보다는 한 번의 시범이 더 효과적이였다.

기사, 기수들은 선반에서 절삭 속도를 높이는 문제, 용접에서 대상물의 변형을 방지하는 문제 등 중요한 기술 문제들을 직접 생산 현장에서 로동자들에게 배워 주었다.

공장 당 위원회는 또한 직맹, 사로청 등 근로 단체들의 사업을 통해서도 로동자들의 기술 및 일반 지식 수준을 높여 주었다.

특히 과학 지식 보급 협회의 역할을 제고하는 것은 로동자들의 기술 기능과 일반 지식 수준을 높이는 데서만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 혁신안을 직접 생산에 도입하는 데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례하면 공장 과학 지식 보급 협회 성원들은 로동자들과 함께 연구와 실험을 거듭하여 석유 곤로 석면포 심지를 돌 심지로 개조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많은 외화와 직물을 절약하고도 심지의 수명을 2 배나 연장시켰다.

이 과정은 로동자들의 기술 기능 및 일반 지식 수준을 높이는 과정인 동시에 기술 혁신 과정이였다.

이상과 같은 제반 사실들은 당 위원회가 구체적인 조직 정치 사업을 진행하여 대중을 기술 혁신에 이악하게 달라붙게 한다면 종업원 1 인 당 생산액은 빨리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로동 행정 사업의 강화는 종업원 1 인 당 생산액 제고의 중요한 예비이다

로동 행정 사업은 다 사람과 직접 관계되는 사업이다.

로동 행정 사업을 생산에서 가장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요소인 사람과의 사업으로 완전히 전환시켜야만 종업원 1 인 당 생산액을 결정적으로 높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은 로동 행정 사업을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시킬 것을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종업원 1 인 당 생산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로동 행정 사업의 구체적 내용들을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로동 행정 사업에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김 일성 동지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회주의 분배 원칙을 철저히 실시하여 로동자들에게 물질적 자극을 주는 것이다.

물질적 자극의 실현 수단으로서의 사회주의 분배 원칙을 정확히 관철하며 그것을 기술 혁신 과업과 밀접히 결합시키는 것은 기술 혁신을 촉진하며 종업원 1 인 당 생산액을 높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사회주의 분배 원칙의 관철에서 우리가 얻은 중요한 경험의 하나는 자체 정량 사업을 물질적 자극으로 안받침하는 것이 극히 중요하다는 것이였다.

사회주의 분배 원칙의 철저한 관철은 무엇보다도 먼저 정확한 작업 기준량의 설정을 전제로 하며 그것은 광범한 생산자 대중이 자체 정량 사업에 자각적으로 동원될 때에 성과적으로 보장된다.

그렇기 때문에 로동자들에 대한 정치 도덕적 자극을 강화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체 정량 사업에 자각적으로 동원되도록 하는 동시에 그들의 수입도 체계적으로 증대시키는 방향에서 분배가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당 위원회의 지도 밑에 공장 관리부는 로임부 동무들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심중히 토의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웠다.

공장의 모든 생산 단위들에서는 정치 사업을 선행하여 로동자들의 로동에 대한 정치 도덕적 자극을 강화하는 동시에 로임 지불은 로동자들의 능력의 제고에 따라 가면서 종전의 작업 기준에서 점차적으로 높이는 방향에서 실시하였다.

이것은 로동자들의 자체 정량 사업에 대한 열의를 고무하였다.

그것은 로동자들로 하여금 자기의 기능 수준을 높이고 새로운 작업 방법을 도입하여 로동 생산 능률을 높이는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동시에 수입도 점차 많아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업 조직은 자체 정량 사업을 보다 대중적 운동으로 전개되게 하였는바 8월 한 달 동안만 하여도 청년 가공 직장의 매 작업반에 비치된 새 기준량 등록부에는 49 건의 새 기준량이 등록되였다. 이것은 종전에 비하면 실로 10여 배에 달하는 수'자이다.

그것은 또한 새로운 작업 기준을 창조한 로동자와 그렇지 못 한 로동자의 수입에서 일정한 차이를 조성함으로써 기술 혁신을 하지 않고 낡은 작업 방법을 답습하는 로동자들을 새로운 기준량 창조에 불러 일으키게 하며 합리화안, 새로운 작업 방법을 더 빨리 도입, 일반화하게 한다.

지금 이 직장에서는 기술 혁신안이 제기되거나 새로운 작업 방법이 나오게 되면 저마다가 빨리 도입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새 기술, 선진 작업 방법이 일반화되는 기간은 종전에 비하여 거의 절반으로 줄어 들었다.

다음으로 중요한 문제는 새로운 기술, 선진 작업 방법의 도입 등에 대한 물질적 자극을 강화하는 것이다.

새로 창안된 기계 설비, 합리화안이 생산에 도입되는 경우에 창의 고안 상금을 지불하는 것이 기술 혁신의 촉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 것은 주지하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보다 못지 않게 중요한 문제는 일단 창안된 기계 설비들, 새로운 작업 방법의 효과를 더 빨리 발휘하도록 하며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창안품, 새로운 작업 방법을 적극 접수할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 장려하는 것이다.

로동자들이 새로운 선진 작업 방법, 새로 창안된 기계 설비들에 익숙하기까지에는 일정한 기간 그 능력을 다 발휘시키기가 그리 쉽지 않다. 만약 작업 기준을 단꺼번에 새로운 선진 작업 방법, 새로운 기계 설비들의 기술 기준의 수준에서 설정한다면 로동자들의 수입은 적어질 수 있으며 따라서 그것의 일반화에는 일정한 지장이 생기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장에서는 새로운 기술, 새로운 작업 방법이 도입되는 초기에는 작업 기준을 기술 기준보다 낮게 설정하고 로동자들이 숙련되여 감에 따라 점차적으로 기준을 높여 주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모든 로동자들이 다 기술 혁신에서 적극성을 발휘케 하고 거기에 관심하도록 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졌다.

새 기술 도입과 자체 정량 사업 및 창의 고안에 대한 보수 조직은 서로 밀접히 결부되였다.

그것은 새 기술, 새로운 작업 방법의 도입이 창의 고안 및 자체 정량 사업과 밀접히 련관되여 있기 때문이다.

우리 공장에서 취한 이와 같은 조치들은 로동에 대한 물질적 자극이 기술 혁신을 촉진하며 종업원 1 인 당 생산액을 높이는 힘 있는 추동력으로 되게 하였다.

로력 배치, 작업반 조직의 합리적 실현은 로동 행정 사업의 중요 구성 부분이며 종업원 1 인 당 생산액 제고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우선 전체 종업원 중에서 직접 부문에 있는 로동자들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직접 부문에 있는 로동자의 비중이 감소된다면 아무리 기술 혁신을 한다고 해도 종업원 1 인 당 생산액은 뜻 대로 높아질 수 없다.

공장 당 위원회는 사무를 간소화하고 간접 부문에서 기술 혁신을 추진시켜 로동 생산 능률을 높이는 등 모든 예비와 가능성을 동원하여 직접 부문 로동자 비중을 높이는 데 중요한 관심을 돌렸다. 이리 하여 직접 부문 로동자 비중은 체계적으로 장성하였는바 1962년에 53.6%이던 것이 지금은 58.7%를 차지한다.

직접 부문 로동자 수의 장성은 종업원 1 인 당 생산액 제고의 중요한 요인이였다.

직접 부문 로동자 비중을 증대시키는 것과 함께 로력 배치에서 중요한 문제는 일'군들을 그들의 소질과 능력, 체질에 따라 적재 적소에 배치하는 것이다.

녀성들의 비중이 종업원 총수의 35% 이상을 차지하는 실정에서 그들의 체질과 능력을 고려하여 적당한 일'자리에 배치하는 문제는 특히 중요하였다.

례컨대 녀성 선반공들을 배치함에 있어서는 그들을 될 수 있는 대로 소형 및 경량 부분품들을 가공하며 단일한 작업을 수행하는 기대에 돌리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로력 배치는 로동 년한이 짧고 체질이 약한 녀성 로동자들과 신입 로동자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수행하는 작업에 빨리 익숙하게 하며 로동 생산 능률을 높이게 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졌다.

로력 배치 문제와 함께 중요한 문제는 작업반과 교대를 합리적으로 조직하는

것이다.

특히 교대 조직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

종전에는 직장들에서 교대를 작업반간에 진행하였다.

이러한 교대 조직은 기대 관리에 빈틈이 생기게 하고 책임성을 약화시키게 함으로써 적지 않은 작업 휴지 손실을 가져 왔다.

이러한 페단을 극복하기 위하여 공장에서는 작업반 내부에 1, 2 교대를 조직하고 기계 설비들을 작업반들이 완전히 단독적으로 책임 지게 하였다.

작업반 교대 조직의 이러한 개편은 일부 일'군들 속에 남아 있던 본위주의적인 경향을 제거하고 기계 설비에 대한 로동자들의 책임성을 제고하였다.

이 외에도 후방 공급 사업을 개선하고 로동 규률을 강화하며 증산 경쟁 운동을 광범히 조직하는 등 일련의 조직 정치 사업을 짜고 들어 진행함으로써 로동 행정 사업을 전 공장적인 사업으로 완전히 전환시켰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로동 행정 사업의 개선은 종업원 1 인 당 생산액을 높이는 중요한 예비의 하나였다.

* *

우리 공장이 종업원 1 인 당 생산액 제고에서 달성한 성과는 아직 초보적인 것에 불과하다.

종업원 1 인 당 생산액을 결정적으로 높일 데 대한 당의 정책적 요구를 정확히 관철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많은 일을 하여야 한다. 우리 공장에서는 이제까지의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한 그람의 철재, 단 몇 분의 시간이라도 더 절약하는 등 공장의 모든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동원 리용하여 원가를 체계적으로 저하시키며 설비 리용률을 제고하는 동시에 제품의 질을 한층 더 높여야 할 것이다.

지금 공장의 전체 종업원들은 1966년까지에는 종업원 1 인 당 생산액을 1963년의 2 배로 높일 결의 밑에 줄기찬 로력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필자는 만경대 건설 기계 공장 당 위원회 위원장 임)

남조선에서의 미제의 반동적 문예 정책

한 두 일

남조선 위정자들과 반동 문예인들은 문학 예술의 《순수성》, 《창작의 절대적 자유》에 대하여 요란스럽게 떠들고 있다.

이것은 미제와 괴뢰 도당의 사상적 대변자로서의 남조선 문학 예술의 반동성을 엄폐하기 위한 기만 술책에 불과하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온갖 문학과 예술은 이런 혹은 저런 계급, 당들의 리익을 옹호하며 대변한다.

《사회에서 살면서 사회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부르죠아 작가, 화가, 배우들의 자유란 돈'주머니와 매수와 급료에 대한 가장된 예속에 불과한 것이다》(레닌《문학에 관하여》, 6 페지).

비애와 절망, 색정과 퇴폐주의, 전쟁과 살인 등을 선전하는 남조선 문학 예술은 미제의 식민지 예속화 정책과 괴뢰 반동 통치 제도에 충실히 복무하고 있다.

남조선 문학 예술의 반동성은 남조선에서 미제와 괴뢰 도당이 실시하고 있는 문예 정책의 내용에서 표현되고 있다.

* *

남조선에서 미제가 실시하고 있는 문예 정책의 주요한 사상적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은 《반공》 및 전쟁 선동, 색정주의, 허무주의 등이다.

미제와 그 주구들은 문학 예술을 통하여 남조선 인민들에게 사회주의 진영과 공화국 북반부에 대한 악의에 찬 허위 선전을 진행하며 극도의 퇴폐와 타락, 무기력을 고취하기 위한 책동을 발악적으로 감행하고 있다.

남조선에서의 미제와 그 주구들의 이러한 책동은 오늘 미국을 비롯한 서방 제국주의 국가들에 광범히 류포되고 있는 실존주의 철학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본래 실존주의는 20 세기 자본주의 세계의 심각한 위기와 절망을 반영하고 있는 반동 철학 사상이다.

이 철학은 일명 《불안의 철학》이라고도 불리고 있다. 그의 제창자들은 즐겨 《고민》, 《불안》, 《절망》이 인간 존재의 본질이라고 력설하면서 세계에는 《나》 이외에 아무 것도 없으며 과거와 미래도 없다고 말하고 있다.

보는 바와 같이 실존주의 철학의 이러한 주장은 개인 리기주의, 허무주의에 대한 설교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이것은 남조선에서 류례 없는 온갖 악덕과 패륜을 합리화하고 살인과 갈

은 범죄 행위를 례찬하려는 미제와 그 주구들의 문예 정책과 일치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미제와 그 주구들은 남조선 인민들의 혁명적 각성을 마비시키며 그들을 자기들의 충실한 노예로 만들기 위한 반동적 문예 정책의 기초를 실존주의에 두고 있다.

그들은 실존주의 외에도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학》을 끌어 들여 인간의 동물적 본능을 절대화하는 색정주의 문학 예술을 조장하고 있다.

이 모든 반동적 부르죠아 사상들은 남조선에서 자연주의 문학 예술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

미제와 남조선 력대 위정자들은 해방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민족 문화를 말살하고 온갖 반동적 자연주의 문학 예술을 조장하여 왔다.

최근 남조선에서의 미제와 괴뢰 도당의 문예 정책은 그 수법에 있어서 가장 악랄하고 교활한 데 특징이 있다.

다 아는 바와 같이 미제와 그 주구들은 《반공》, 《숭미》 사상을 악랄하게 고취하면서도 마치 자기들이 민족 문학 예술 발전에 관심하는듯이 가장하고 있다.

박 정희가 금년 《년두 교서》에서 《민족 문화 예술의 창달》에 대하여 운운한 것은 자기들의 반동 문예 정책의 본질을 은폐하려는 교활한 술책에 불과하다.

그들이 남조선에서 반동적 문예 정책의 본질을 이처럼 달콤한 말로써 감싸고 있는 것은 결코 리유 없는 일이 아니다.

본래 제국주의자들은 식민지 예속화 정책을 실현함에 있어서 민족 문화 말살 정책에 주요한 의의를 부여한다.

그들은 민족 문화의 말살 책동을 통하여 식민지 인민들의 계급적 및 민족적 각성을 마비시키며 자기들의 침략과 략탈 정책을 합리화하려고 한다.

최근 남조선에서 미제와 그 주구들이 반동 문예 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더욱더 날뛰고 있는 것은 남조선 인민들의 혁명적 각성이 점차 제고되고 있는 사정과 관련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공화국 북반부의 영향력과 19 년 간에 걸친 미제와 그 주구들의 반인민적 정책은 남조선 인민들의 정치적 각성을 비상히 제고시켰다.

오늘 남조선 인민들은 자기들이 처한 비참한 생활 처지로부터 벗어 나기 위해서는 미제를 몰아 내고 그 주구들을 타도하며 나라의 통일만이 살'길이라는 것을 점차 깨닫고 있다.

오늘 남조선 인민들 속에서는 《미 군정을 겪고, 4.19를 치르고 과도 정권을 거쳐 민주당 통치를 받았고 다시 5.16을 통해 군사 통치도 받아 보았으나 민중의 살림살이는 갈수록 태산격으로 암담하기만 하다.》고 개탄하면서 《살'길은 민족 통일 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 가고 있다.

특히 남조선 인민들의 각성은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의 반동 문예 정책이 로골화됨에 따라 더욱 높아졌다.

오늘 남조선 인민들은 민족 문화를 파괴 말살하는 박 정희 도당을 규탄하면서 통일된 조선의 민주주의 민족 문화 건설을 위하여 남북의 문화 교류를 위한 접촉과 협상을 주장하고 있으며 조국의 통일을 더는 지체할 수 없는 절박한 요구로 제기하고 있다.

남조선 인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청년 학생들의 6.3 봉기는 이것을 잘 실증하여 주었다.

남조선에 조성된 이러한 정세로 하여 미제와 그 주구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죄과를 은폐하며 날로 장성 강화되는 평화 통일 력량을 억누르고 인민들의 주목을 딴 데로 돌리려는 흉책으로서 반동 문예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미제와 괴뢰 도당의 반동적 문예 정책은 남조선에서 우리 민족의 유구하고 찬란한 민족 문화를 말살하고 《반공》 《숭미》 사상을 고취하며 인민들의 민족적 및 계급적 의식을 마비시킴으로써 자기들의 식민지 파쑈 통치의 사상적 기반을 공고화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다.

미제와 그 주구들은 바로 이러한 목적으로부터 출발하여 남조선에서 식민지적 반동 문예 정책을 가장 악랄하게 실시하고 있다.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반동 문예 정책의 주요 내용으로 되고 있는 것은 우선 진보적 문예인들과 문예 단체의 활동을 야만적으로 탄압하는 한편 반동 문예인들을 비호 육성한 것이다.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는 군정을 실시하고 영어를 관용어로 사용할 것을 선포하는 동시에 문학 예술을 포함한 일체 언론, 출판 활동을 극력 탄압하기 위하여 《군정 명령 제 8 호》(1945년 10월)를 발표하였다.

미제는 이 《군정 명령》으로써 1948년 초까지만 하여도 600여 명에 달하는 문화인들을 검거, 투옥, 학살하였으며 1949년까지 서울에서 61 개의 신문, 잡지 출판사를 강제 폐쇄하였다.

특히 전후 미제와 괴뢰 도당은 진보적인 언론, 출판, 문학 예술 활동에 대한 탄압을 가일층 강화하였다. 1955년 8월 《문화인 등록령》을 공포 실시하고 그 후 이를 반대한다는 구실 밑에 《자유 예술인 련합회》를 비롯한 문예 단체 10여 개를 강제로 해산시킨 사실, 1958년 한 해에만도 《국민 여론》을 비롯한 75 종의 정기 간행물을 폐간시킨 사실 등은 그 실례로 된다.

더우기 미제와 군사 파쑈 도당은 문학 예술을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 실현에 리용하기 위하여 진보적인 작가들을 《용공》이란 딱지를 붙여 검거, 투옥, 학살하는 등 전례 없는 가혹한 탄압을 가하고 있다.

최근에도 박 정희 도당은 파쑈 악법인 《언론 륜리 위원회법》을 날조하여 남조선 출판 보도 기관들과 진보적인 문예인들을 탄압하려 하고 있다.

미제와 괴뢰 도당은 이와 같이 진보적인 문예인, 문예 단체들을 탄압하는 동시에 반동 문예인들을 비호 육성하고

있다.

그들은 과거 일제 시기 《순수 예술》의 미명 하에 일제의 조선 침략과 태평양 전쟁을 직접 간접으로 합리화하면서 민족 반역의 길로 전락했던 반동 문인들과 부르조아 문학 예술을 찬미하는 온갖 인간 쓰레기들을 규합하여 자기들의 반동 문예 정책 집행에 내몰고 있다.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은 반동 문예인들에게 항상 자기들의 문예 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분골 쇄신》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리 승만의 직접 비호를 받고 있던 김 모가 괴뢰 도당의 지시 대로 문학 작품에서 《국책적 및 사회적》인 것을 제 1 차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남조선 작가, 예술가들의 규탄을 받듯이 문학 예술인들을 강권으로 동원하려는 박 정희의 시도도 진보적인 작가 예술인들의 조소와 비난을 받고 있다.

남조선 괴뢰들은 문예 분야에서의 각종 《시상제》, 《저작권법》 등을 조작하여 반동 문예인들을 비호 육성하고 있다. 례컨대 《자유 문학상》은 1953년에 조작되여 매년 1 회씩 시상되고 있는데 황 모의 《카인의 후예》, 김 모의 《밀다원 시대》 등 공화국 북반부와 사회주의 진영을 비방 중상하면서 남조선 인민들을 퇴폐와 타락의 길로 이끌려는 작품들을 《우수한 작품》으로 선발하고 있다.

《자유 문학상》의 반동성은 그것이 미제의 아세아 침략을 담당하고 《숭미》 사상 선전의 선두에 서 있는 《아세아 재단》에 의하여 조작되였으며 거기서 재정적 방조를 받고 있다는 한 가지만으로도 가히 알 수 있다.

오늘 군사 정권도 《신인 예술상》 각종 《문예 현상 모집》 등을 통하여 《반공》을 내용으로 하는 문예 작품을 다량적으로 창작시키고 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반동 작품을 극력 장려함으로써 반동 문예인들을 양성하고 진보적 경향성을 띤 작품들의 출현을 방지하려는 흉책에 불과하다.

미제와 괴뢰 도당의 반동 문예 정책의 또 하나의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은 조선 인민의 빛나는 문화 유산에 대한 파괴 략탈 책동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민족 문화 유산이 인민들의 애국주의 사상과 민족적 및 계급적 의식 제고에서 노는 역할과 의의는 매우 크다.

그러므로 미제는 남조선 인민들을 자기들의 충실한 노예로 만들기 위한 반동 문예 정책 실현의 중요한 초점을 민족 문화 유산을 말살하는 데 두었다.

그들은 남조선의 모든 문화 유물을 닥치는 대로 악랄하게 파괴 말살하였다.

미제는 서울 대학교 소장본인 리조 실록을 비롯한 8,000여 점의 국보적 도서들과 《중앙 박물관》, 《덕수궁》에 소장되여 있던 미술 공예품 등 7,800여 점의 문화재를 강도적으로 략탈하였다. 그들은 괴뢰 도당으로 하여금 《문화재 해외 전시안》을 《국회》에서 강제로 통과시키게 하고 200여 점에 달하는 고귀한 고전 미술 공예품을 략탈하는가 하면 문화재가 보관된 곳에 군용 도로를 닦음으로써 귀중한 문화재들을 파괴하였다.

미제와 괴뢰 도당은 귀중한 문화재를 《인위적으로 파괴》하고 있다. 그들은 《도시 계획》이니 《주택 기지》니 하면서 이미 5, 200 메터의 서울 《성곽》을 허물었으며 수 많은 석탑, 성문 등을 파괴하였다.

미제와 괴뢰 도당은 서울 《경복궁》을 비롯한 적지 않은 문화 유물들을 유흥장으로 전변시키는 참을 수 없는 만행까지 감행하였다.

또한 남조선 괴뢰 정권은 수 많은 문화재를 외국에 팔아 넘기는 민족 반역 행위를 감행하였다.

박 정희는 《외화 획득》이라는 명목 하에 《리조 백자》 55 점, 리조 말기에 만든 85 점의 목재 《장》 및 《함》을 비롯하여 수 많은 귀중한 문화재를 팔아 먹었다. 이에 대하여 《동아 일보》까지도 남조선 문화재는 《이미 외국에 많이 판매되여 앞으로 한국 연구를 일본이나 미국에 가서 해야 할 판》이라고 개탄하였다.

미제와 남조선 괴뢰 도당이 민족 문화의 말살을 위해 이러저러한 형태로 감행한 범죄 행위는 실로 허다하다.

미제와 그 추구들의 이러한 책동은 우리 인민이 이룩한 빛나는 민족 문화를 말살하고 양키 문화를 부식시키려는 흉악한 책동에 불과하다.

현시기 미제와 괴뢰 도당의 반동 문예 정책의 주요 내용을 이루는 것은 또한 미 일 제국주의의 부패한 문화를 남조선에 끌어 들여 민족 문화를 말살하려는 것이다.

박 정희 도당은 《새로운 민족 문화의 창조》를 운운하면서 《오늘날의 안일하고 퇴폐적인 우리 문화 현상을 비판하여 새로운 민족 문화 재건의 기반을 조속히 정비해야 하겠다.》느니 《사대주의적 태도를 버리고 전통과 력사를 자랑하는 민족 문화의 선양에 힘써야 한다.》고 떠들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민족 문화의 창조》를 호소하면서 말과는 달리 미제의 각종 침략 사상과 《미국식 생활 양식》을 류포하는 연극, 영화, 노래, 소설을 비롯한 각종 문예 작품들을 끌어 들여 남조선에 범람케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일본 군국주의 문화까지 끌어 들여 남조선 문화를 더럽히고 있다.

부패한 제국주의 문화의 침투는 남조선 현실을 외곡하며 저속한 쟈즈나 샹송의 구린내 나는 소음으로 민족 음악을 희롱하거나 로이드 안경에 개화장을 든 리 도령, 요부로 화한 춘향으로 우수한 민족 고전 《춘향전》을 모독하고 있다.

이렇게 되고서야 어찌 《건전한 문예 작품의 창작》이 가능하며 《민족 문화의 창조》가 가능하겠는가.

남조선 신문 《한국 일보》가 《대중 음

악 가운데 쟈즈 음악이 아니면 서양이나 일본 것을 모방한 것이 압도적이》며 《라지오나 또는 청소년들이 부르고 있는 노래들은 거의 미국의 쟈즈, 불란서의 샹송, 그렇지 않으면 류행가 따위로서 국민이 즐겨 부를 만한 가요가 없》으며 《한국은 문화적 식민지인 인상을 씻을 수 없다.》라고 개탄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제반 사실은 남조선에서 미제와 괴뢰 도당이 실시하고 있는 문예 정책의 반동적 본성을 똑똑히 보여 주고 있다.

* *

미제와 괴뢰 도당의 반동 문예 정책은 남조선에 엄중한 후과를 미치고 있다.

그것은 우선 남조선 문학 예술을 좀먹은 것이다.

오늘 남조선에서는 《반공》을 주제로 하는 악질적인 작품들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서 모의 소설 《항변》, 성 모의 소설 《잃어 버린 사람들》, 박 모의 시 《우리는 불, 적을 심판하는》 등은 모두다 공화국 북반부의 사회주의 제도와 그의 정당한 정책을 비방 모독하는 극반동적인 작품들이다.

그것은 《자유 문학》(1963년 2 호)에 실린 구 모의 희곡 《수치》(전 3 막 3 장)에서도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이 희곡의 밑바닥에는 시종일관 인간 학대와 증오, 죽음에 대한 강요, 저속한 색정의 무서운 가시가 흐르고 있다.

이 희곡은 현재 다시 드라마화되여 여러 선전 수단을 통하여 계속 나타나고 있다.

남조선의 자연주의 문학에서 《반공》, 전쟁 선동 문학과 함께 현재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색정주의 문학이다. 리 모의 《인간보》, 류 모의 《패륜아》, 렴 모의 《동서》 등은 그 중 극히 대표적인 것들이다. 《인간보》에서는 쥬리애라는 《양공주》의 육체를 시종일관 로출시키고 있으며 《패륜아》는 그 제목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아들의 애인은 아버지가 희롱하고 어머니(계모)는 아들이 희롱하는 패륜 세계를 그리고 있다.

그들은 《예술은 성'적 만족을 충족시키는 수단》(프로이드)이며 인간은 《성'적 집계》로서 동물에 불과한바 이 세계에는 인간 륜리, 사회 질서, 문명과 진보도 없으며 오직 추악한 동물적 세계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력설하고 있다.

이러한 반동 작품들은 오늘 남조선의 독자들에게 무기력과 부패 타락을 선전하며 나아가서는 그들의 투쟁 의식을 마비시킨다.

남조선 문학 예술에는 또한 허무주의적 내용이 범람하고 있다. 김 모의 소설 《발광 직전》에서는 조선 사람은 미군이 버린 쓰레기와 다를 바가 없는 너저분하고 구질구질한 존재라고 모독

함으로써 민족적 자부심을 거세하고 자살 행위를 례찬하고 있다.

손 모의 《피해자》는 자유 로동자 병준이란 인물을 통하여 온갖 감언 리설로 월급을 수개월씩 주지 않은 회사 사장을 도리여 자기를 해고시키지 않는다 하여 감사히 여기면서 월급을 못 받아 온 것을 안해에게 용서를 비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것은 로동 계급에게 무기력성을 강요함으로써 미제와 괴뢰 도배의 략탈과 억압을 반대하는 그들의 혁명적 투쟁 의식을 마비시키려는 것이다.

오늘 남조선 문학 예술에는 형식주의가 또한 창궐하고 있다. 사상적 내용을 거부하고 《순수 미》, 《순수 형식》을 추구하는 이 형식주의 미학은 오늘 남조선의 문학, 미술, 음악 등 각 분야에서 널리 류포되고 있다. 특히 남조선의 시 문학에서 이 형식주의는 지배적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남조선 문학 예술의 이러한 내용은 미제의 침략과 략탈 정책 실현에 직접 간접으로 방조를 주고 있다.

이와 같이 미제와 괴뢰 도당의 반동 문예 정책은 오늘 남조선 인민들의 정신 도덕 생활에 엄중한 후과를 미치고 있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우리 민족의 미풍량속이 유린되고 《미국식 생활 양식》에서 오는 패륜과 패덕, 테로와 깽, 도박 등의 온갖 범죄 행위가 범람하고 있다. 매일 증가되는 이러한 범죄 행위들은 미국 문화의 전파와 직접 관련되고 있다.

현재 남조선 영화관들에서는 《현상 붙은 사나이》, 《죽도록 사랑하련다》, 《정조》, 《애정 행로》, 《복수의 결투》 등 영화들이 상영되고 있는바 이것들은 다 살인 강도 행위와 부화한 련애 관계를 례찬한 것들이다. 서울의 모 고등학교 학생 리 모는 자기 아버지를 권총으로 쏘아 살해한 동기에 대하여 그것은 《미국 영화를 본 것이 재미가 있기 때문에 그 대로 해 본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것은 미제 강점 하에 있는 남조선의 부르죠아적 부패 타락상을 그 대로 반영한 것이다.

미제의 민족 문화 말살 정책의 죄악적 후과는 남조선 대다수 문예인들의 생활 처지의 악화와 문화 기관들의 경영난에서도 여실히 볼 수 있다.

남조선에서 소위 신극을 표방하여 이름 있다고 하는 극단까지도 재정난으로 년간을 통하여 겨우 2~3 회 공연하는데 불과 하며 남조선 출판물에 지적되고 있는 바와 같이 《연극 자체는 마치도 수천 발의 총탄에 맞은 물체처럼 구멍이 숭숭 뚫어진 것》들로 관중의 조소와 비난을 받고 있다.

현재 남조선의 대다수 문학 예술인들에게는 창작 조건과 자유가 보장되여 있지 않으며 그들의 생활과 삶은 절박한 문제로 되고 있다.

남조선 예술인들의 처지가 얼마나 처참한가는 그들의 대다수가 오락, 흥행 장소에서 직업을 구하고 있으며 그 밖

에 다수는 실업 상태로 거리에서 방랑하고 있다는 사실이 잘 보여 주고 있다.

《아리랑》의 주인공으로 이름 있던 녀배우 신 모가 본 직업을 잃고 구멍 가게를 차려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괴뢰 도당이 파견하여 파리 《공연 행각》을 떠났던 《민족 극단》이 《정부》의 재정 부족으로 려비까지 대여 주지 못하여 파리에서 인질로 되였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현재 남조선 예술인들 속에서는 실업자만이 아니라 생활난과 고민으로 자살자까지 나타나고 있다.

시인 박 모는 수필 《하루살이》에서 《살고 싶다는 의욕보다 죽고 싶다는 의욕이 더하다》라고 자기 심정을 고백하고 있다.

남조선에 빚어진 이러한 후과는 미제의 남조선 강점과 반동 문예 정책의 직접적 산물이다.

미제의 반동 문예 정책이 남조선 인민들과 특히는 청소년들을 부르죠아 독소와 양풍으로 병들게 만들고 그들의 투쟁 의식을 마비시키는 후과에 대하여 생각할 때 그 누구인들 격분하지 않겠는가.

오늘 광범한 남조선 인민들 속에서 미제의 반동 문예 정책과 그것이 남조선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크게 우려하면서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을 반대 배격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 가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오늘 우리 앞에는 파국에 처한 남조선 문학 예술을 적들의 파괴로부터 구출해야 할 절박한 과업이 나서고 있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남조선의 《과학자, 문화 예술인들은 반동적 미국 문화의 침습을 반대하고 생활 조건의 개선을 위하여 투쟁하여야 하며 민족의 자주적 발전과 인민의 리익에 복무하는 민주주의적 민족 문화의 건설에 용감히 나서야 할 것이다》(《조선 로동당 제 4 차 대회에서 한 중앙 위원회 사업 총화 보고》).

남조선에서 미제와 괴뢰 도당의 반동적 문예 정책과 그 후과를 청산하고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실현함으로써만 우리 인민의 민족 문화와 미풍 량속은 활짝 꽃필 것이며 인민들의 혁명 의식은 더욱 거세게 불타 오를 것이다.

문답학습

당과 인전대

우리 당은 최근 년간 모든 부문에서 당의 령도적 역할을 제고하며 인전대들의 역할과 그의 기능을 제고할 데 대한 조치를 취하였다.

이를 성과적으로 집행하려면 당과 인전대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은 프로레타리아 독재 체계를 통하여 실현된다.

프로레타리아 독재 체계는 로동 계급이 자기의 독재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기구로서 그것은 향도력과 인전대로 구성된다.

프로레타리아 독재 체계 내에서 향도력이란 곧 당을 의미한다.

당은 로동 계급의 계급적 조직의 최고 형태로서 프로레타리아 독재 체계 내에서 모든 대중 조직들을 지도하여 그 조직들의 활동을 로동 계급의 종국적 승리를 위한 유일한 목적에로 인도한다.

우리 나라 프로레타리아 독재 체계 내에서의 향도력은 조선 로동당이다. 조선 로동당은 우리 나라 로동 계급과 전체 근로 대중의 리익을 옹호하여 투쟁할 뿐만 아니라 그 투쟁의 선두에서 대중을 령도하고 이끌고 나아간다.

로동 계급의 당이 자기의 사명을 다하려면 강력한 인전대를 가져야 한다.

레닌은 로동 계급의 당이 인전대를 가져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선진 계급의 전위대로부터 그 계급의 대중에게로 가며 그로부터 근로자 대중에게로 가는 약간의 〈인전대〉가 없이는 프로레타리아트 독재를 실시할 수 없다》(레닌 전집 제 32 권, 4 페지).

사실 상 당이 자기의 믿음직한 방조자인 인전대를 가지지 않는다면 마치 뼈만 있고 살이 없는 사람과 같이 되고 말 것이며 혁명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지 못 하게 된다.

프로레타리아 독재 체계 내에서의 인전대란 당의 외곽 단체들인 국가 기관, 근로 단체들을 말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 정권 기관, 경제 문화 기관들과 직업 동맹,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 녀성 동맹, 농업 근로자 동맹 등이 당의 로선과 정책을 조직 집행하는 인전대들이다.

인민 정권 기관은 당의 로선과 정책의 집행자이며 사회주의 건설의 강유력한 무기이며 우리 혁명의 믿음직한 보위자이다. 인민 정권 기관은 당의 령도 밑에 자기에게 부과된 경제 조직자적 및 문화 교양자적 기능과 적대 분

자들에 대한 진압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직업 동맹은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의 대중적인 정치 단체로서 당과 로동 계급과의 련계를 보장하는 당의 인전대이다.

정권이 반동들의 수중에 있는 자본주의 하에서와는 달리 로동자, 농민이 주권을 장악하고 있는 사회주의 제도 하에서는 정권 기관과 직업 동맹이 그의 목적과 리해 관계에 있어서 완전히 일치한다.

현시기 우리 나라 직업 동맹은 로동 계급 대렬을 공산주의적 붉은 대오로 계속 튼튼히 꾸리며 당에 대한 충실성으로 확고히 무장시켜 당과 국가가 제기한 생산 과제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한다. 또한 그는 근로자들의 로동 조건을 개선하고 물질 문화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은 우리 나라 청년들의 공산주의적 대중 단체로서 당과 청년 대중을 련결시키는 당의 인전대이다.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은 청년들을 당 주위에 굳게 단결시켜 그들을 혁명에 무한히 충실하며 지, 덕, 체를 겸비한 공산주의적 새 형의 인간으로 교양한다. 동시에 청년들을 당의 혁명 전통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계급적 원쑤들을 미워 하고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도록 교양한다.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은 우리 인민의 혁명적 전취물을 수호하며 사회주의 조국을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튼튼히 보위하도록 청년들을 준비시킨다.

농업 근로자 동맹은 우리 나라 협동 농민들과 국영 농목장 및 사회주의 농촌 경리에 직접 복무하는 국가 기관, 기업소, 직장의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의 자원적 원칙에 기초한 혁명적 대중 단체로서 우리 당과 농업 부문의 근로 대중을 련결시키는 당의 인전대이다.

당은 인전대들의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자기의 독재 체계를 유지하고 자체의 력사적 사명을 수행한다.

인전대들은 반드시 당의 통일적 령도밑에 당이 제시한 유일한 방향에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 인전대들에 대한 령도적 역할은 오직 맑스-레닌주의당인 조선 로동당에 의해서 수행된다.

우리 당은 조선 인민의 정치적 수령이며 우리 혁명의 참모부이다.

이에 대하여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 당이 우리 혁명을 령도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의 정치를 지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은 우리 인민의 정치적 수령이다. 우리 당은 우리 나라 로동 계급의 모든 조직들 가운데서 최고의 조직 형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조직이 다 당의 령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원칙이다.≫(김 일성 선집 제 5 권, 452 페지).

그러면 왜 우리 당이 모든 인전대들을 령도하여야 하는가?

그것은 첫째로, 조선 로동당은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맑스-레닌주의 리론으로 튼튼히 무장되여 있기 때문이다.

우리 당은 모든 문제 해결에서 맑스-레닌주의 원리를 우리 나라의 구체적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는 주체적 립장을 확고히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혁명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정확한 로선과 정책을 수립하고 대중을 혁명 과업 수행에로 능숙히 조직 동원한다.

우리 당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 위원회의 현명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가능한 것이다.

둘째로, 우리 당은 근로 대중 속에 깊이 뿌리 박고 있는 정치적 조직으로서 대중의 높은 신임과 풍부한 투쟁 경험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당은 자기 정책의 정당성으로 하여 모든 근로 대중으로부터 무한한 신뢰와 지지를 받고 있다. 이것은 우리 당이 모든 인전대들의 활동에서 옳은 방향을 제시할 수 있고 그 관철에로 대중을 조직 동원할 수 있게 한다.

한편 인전대는 당의 령도를 받아야만 자기의 역할을 옳게 수행할 수 있다.

당과 대중을 련결하는 인전대들은 각이한 분야에서 활동하므로 전체 근로 대중이 나아가야 할 유일한 로선과 정책을 제시할 수 없다. 전체 근로 대중이 유일한 로선과 정책, 동일한 방향에서 활동하기 위하여서는 오직 당의 령도를 받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전대는 당의 령도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접수하고 그에 의거하여야 한다. 그래야 인전대들이 통일적으로 활동하며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의 과업 수행에서 자기의 역할을 옳게 수행할 수 있다.

당과 인전대의 호상 관계에 관한 맑스-레닌주의 리론은 우리 당을 위시한 모든 나라 공산당 및 로동당들의 혁명 투쟁 경험을 통하여 그 정당성이 명백히 확증되였다.

우리 당은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의 전 행정에 걸쳐서 당과 인전대에 관한 맑스-레닌주의 리론에 확고히 의거하였으며 그것을 우리 나라의 구체적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였다.

당은 혁명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인전대들에 대한 당의 령도를 강화하고 인전대들의 기능과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다.

해방 후 초기 당은 인민 대중의 의사를 반영하여 정권 기관들과 직업 동맹, 민주 청년 동맹, 녀성 동맹, 농민 동맹 등 대중 단체들을 조직하였다.

당시 공청을 민청으로 개편한 사실은 중요한 의의를 가졌다.

해방 직후 조직되였던 공청 조직은 보다 광범한 청년 군중을 망라시킬 수 없었다.

우리 당이 공청이라는 국한된 조직을 그 대로 유지한다면 청년 대중들을 공산당 주위에 묶어 세우는 데 난관을 조성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였다.

이로부터 김 일성 동지는 공청을 해산하고 청년들의 광범한 통일적 조직으로서의 민청을 조직할 데 대한 로선을 제시하였다.

당의 이러한 로선은 당시 우리 나라 혁명 발전의 객관적 요구에 순응하는 가장 정확한 로선이였으며 특히 각계 각층의 모든 민주주의적 애국적 인민 대중을 광범히 묶어 세우기 위한 당의 정치 로선의 근본 방향을 반영한 방침이였다.

그러나 반당 종파 분자들은 사회주의 혁명에로의 즉시 이행을 표방하면서 공청을 해산하고 민청을 조직하는 것이 마치도 후퇴인듯이 주장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반당 종파 분자들의 이러한 교활한 책동을 결정적으로 반대하고 당의 이 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을 진행하였다.

당은 그 후에도 매 시기마다 인전대들의 조직을 부단히 정비 강화하고 그에 의거하여 광범한 인민 대중을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 과업 수행에 성과적으로 조직 동원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생산 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성되고 전면적인 사회주의 건설의 단계에 들어 서면서 당은 인전대들에 대한 령도를 현실 발전의 요구에 맞게 더욱 강화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전면적으로 승리하고 청년들의 사회 경제적 처지가 변화하였으며 그들의 사상 의식 수준이 제고됨에 따라 청년 동맹 앞에는 새로운 보다 높은 임무가 제기되였다.

새로운 임무는 그에 적응하게 민청을 더욱 혁명적이고 전투적인 조직으로 발전시키며 그의 역할을 일층 제고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로부터 우리 당은 민청을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으로 개조하여 혁명 과업 수행에서 청년 동맹의 역할을 한 계단 더 높이 올려 세울 방침을 제시하였다.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9 차 전원 회의에서는 조선 농업 근로자 동맹을 조직할 데 대한 새로운 조치를 취하였다. 이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건설의 성숙된 요구를 반영한 현명한 조치로서 인전대를 강화하는 데서 큰 의의를 가진다.

해방 직후 조직되였던 농민 동맹은 토지 개혁을 비롯한 농촌 문제 해결 및 개인 농민 경리의 사회주의적 협동화를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업적을 달성함으로써 자기에게 부과된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였다.

우리 나라 농촌에서 생산 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성된 오늘 농민 동맹은 우리 나라 현실에 잘 부합되지 않게 되였다.

당은 이러한 새로운 현실에 상응하게 농민 동맹을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협동 농민을 비롯한 농업 부문의 광범한 근로자들을 망라하는 강력한 혁명적이며 대중적인 조직체인 조선 농업 근로자 동맹을 내오게 하였다.

농업 근로자 동맹은 우리 당의 령도 밑에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농촌 건설을 촉진시키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 과업을 실현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농업 근로자 동맹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제시된 과업 즉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을 촉진하며 농업 근로자들 속에서 당'적 사상 체계를 철저히 확립하고 로농 동맹을 강화하고 농촌에서 핵심 진지를 더욱 공고히 한다.

농업 근로자 동맹은 우리 나라 농촌에 남아 있는 비조직 군중을 당 주위에 묶어 세움으로써 우리 당의 혁명적 군중 로선을 더 잘 관철하여 혁명 발전을 전반적으로 더욱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당은 이와 같이 인전대들을 조직하고 그를 개편 발전시키는 사업과 함께 그의 각급 위원회들을 당에 무한히 충실한 일'군들로 꾸리고 그들의 역할을 높이도록 지도하였다.

특히 로동 계급 출신 간부들과 애국 렬사 유가족, 제대 군인 등 계급적으로 각성되고 당에 무한히 충실한 일'군들을 각급 인전대에 보내여 그 질적 구성을 부단히 제고하였으며 그들을 당'적 사상 체계가 확립되고 정치 리론 수준이 높은 일'군들로 체계적으로 교양 육성하였다.

동시에 인전대의 각급 위원회들에서 집체적 협의제를 강화함으로써 당이 제시한 모든 혁명 과업을 제때에 관철하도록 지도하였다.

당은 인전대를 튼튼히 꾸리는 사업과 함께 인전대들에 정확한 사업 방향과 그 수행 방도를 제시하고 집행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였다.

즉 인전대들의 책임 일'군들로부터 혁명 과업 수행 정형에 대한 보고를 정상적으로 청취하고 우수한 경험을 종합하고 일반화함과 함께 결함과 부족점을 시정하여 주면서 막힌 고리를 제 때에 풀어 주었다. 그리고 그들의 사업을 정상적으로 지도 통제하여 그 기능을 높이였다.

인전대들에 대한 이러한 당의 령도는 그 어떤 강제나 명령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인전대 내에서 사업하는 당원들은 자체의 적극적인 활동과 모범으로 대중에게 영향을 주었으며 대중을 설복 해설하는 방법으로 교양하였다.

당은 인전대들에 정확한 사업 방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에서 청산리 방법을 철저히 관철시켜 사업 체계와 사업 방법을 부단히 개선하도록 지도하였다.

인전대들에서 사업하는 당원들이 자기의 본신 임무를 튼튼히 틀어 쥐고 직접 아래를 도와 주는 사업 체계를 철저히 확립하여 군중 속에 들어 가 그들의 수준에 맞게 사업을 창발적으로 조직 집행하도록 지도하였다.

이상과 같이 당은 인전대에 대한 령도적 역할을 제고함으로써 인전대들이 전체 군중을 당 주위에 결속시켜, 그들을 혁명 과업 수행에 조직 동원할 수 있도록 그의 역할을 제고시켰다.

현시기 모든 부문에서 당의 령도적 역할을 제고함과 동시에 인전대들의 역할과 기능을 제고하는 것은 전면적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촉진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모든 인전대들은 자기 부문에서 청산리 방법을 더욱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사업 체계를 확립하며 지도 일'군들의 정치 실무 수준을 높이여 부단히 사업 방법을 개선하여야 한다.

우리의 인전대들은 지난날에도 그러했던 것처럼 당의 령도 밑에 공화국 북반부의 전체 근로자들을 붉은 일색으로 꾸리며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 위원회 주위에 철통 같이 단결시킴으로써 우리 당이 제시한 7 개년 계획의 후반기 과업을 완수하는 투쟁에 적극 기여할 것이다.

박 면

근 로 자 제 20 호 (루계 258 호)

편집 위원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주 소 • 평양시 중구역 경상동
인쇄소 • 평양 종합 인쇄 공장
인 쇄 • 1964 년 10월 17일 발 행 • 1964년 10월 20일

ㄱ-430617 값 40 전